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1. **11+12**

통권 제108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1년 11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역사와 문화의 품격으로 만들어 가는 명품 국가브랜드
역사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머릿글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원장

11·12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임권택 영화감독

-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세상을 보는 눈 이남옥 서울사이버대 교수

회원칼럼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Hot & Issue UNCCD COP10

CEO 미디어스피치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Story 기행

회원&연구원소식

아카데미 뉴스

문화경영

정보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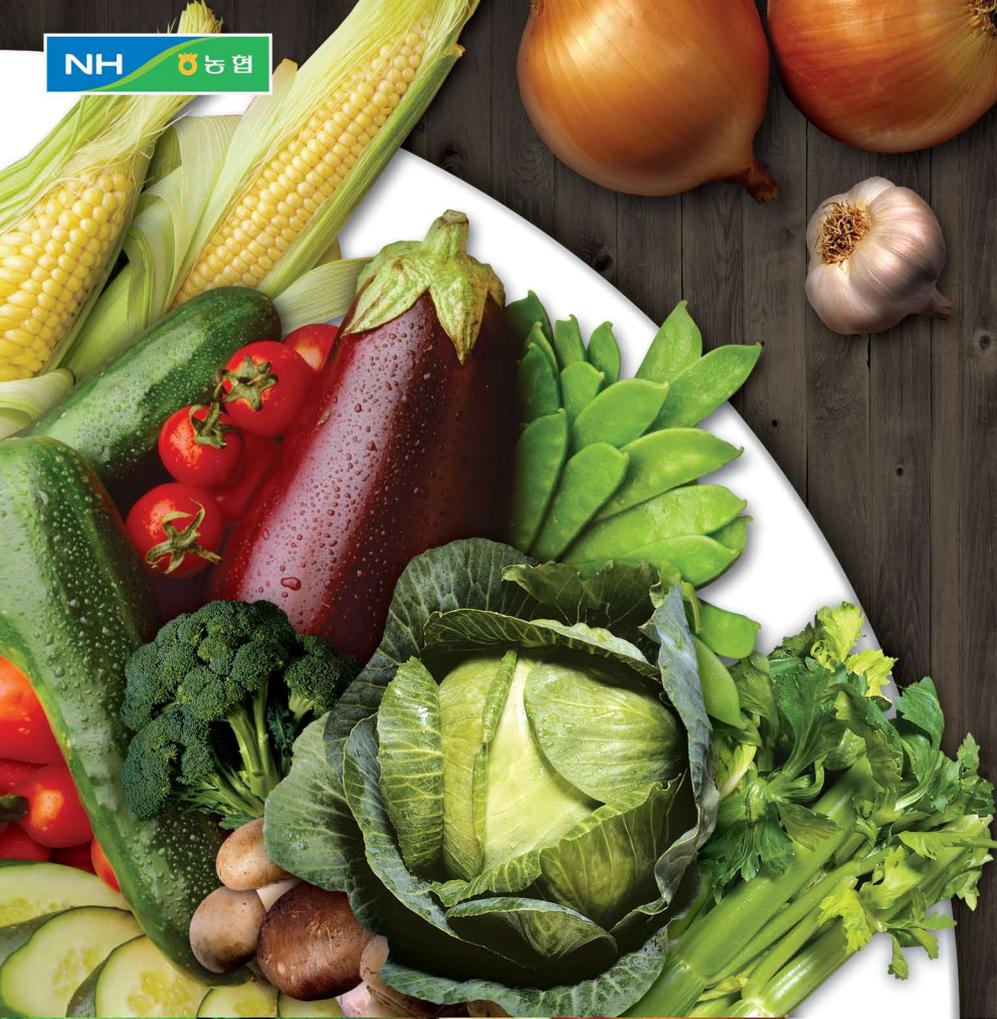
Special Focus 소통아카데미 1기

명사초청특강 김봉곤 한민족예술학교 훈장

발행인편지

홍원탁칼럼





싱싱한 식탁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들안에서 정성들여 키워낸
우수농산물 프라네 채소와 함께
당신의 식탁을 깨끗한 만족감과
싱싱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



달콤한 식탁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들안에서 정성들여 키워낸
우수농산물 프라네 과일과 함께
당신의 식탁을 신선한 즐거움과
달콤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



변화하는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24년간 노사분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노사경쟁력이 세계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행히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분규를 제외하면 올해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2011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 노동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국민을 섬기고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동운동만이 살 길'이라고 역설했으며,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총회 투표결과 53.2%로 가결돼 사회적 요구를 수용했다.

또 쌍용자동차는 9차례의 협상 끝에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전격적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7만1천 원 인상,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장학회 설립, 전 직원 단체개인연금보험 가입 등이다. 쌍용자동차의 합의안 도출은 단체교섭 개시 이래 가장 단시간에 합의된 것으로써 대외적 신뢰도 확보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발판 마련, 노사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투쟁일변도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과감히 탈퇴하고, 독립노조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커다란 이슈였던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를 국내업계 최초로 전격 합의했다.

노조위원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회사 회생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합원 총회절차가 끝나면 생산과 품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정된 노사관계가 바탕이 되어 회사의 정상화에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매년 노동절을 전후해 노조가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노조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노조가 정치투쟁을 일삼고 상층 지도부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귀족노조운동'을 펼치는 상황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대에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과 심지어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갈등과 대립 나아가 투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다. 노사 간 갈등 없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근로자의 의식적 성숙을 동반해야 하므로 원만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및 제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노사협력을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노사상생(win-win)에 의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헌신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지만 특히 기업구성원에 속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주어진 역할은 더욱 크다. 만약 노사가 서로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한쪽이 좀 더 가질 경우 얼마간은 다소 편할 수 있으나 결국 나머지 삶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과거 전투 지향적 노사관계에서 모범적으로 변신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는 판매시장을 개척하며 노사안정에 적극 협력하고, 회사는 노조의 애로 사항 해결과 30여 년간 정리하고 없이 58세 정년을 보장하는 등의 화답을 하고 있다. 그 덕분으로 현대중공업은 세계 제1위 점유율의 조선회사로 자리 잡았다.

근로자는 당장의 실리 및 명분보다는 미래의 실질적 혜택을 얻겠다는 확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고, 경영자는 이윤창출을 통해 임금개선과 후생복지에 반영하는 등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것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당사자는 이해, 신뢰, 양보, 관용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체교섭 시 노동 성과와 임금인상을 연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불황기에 들어선 지금, 몫(pie)의 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분배중심에서 성장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은 기업성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합법적 및 합리적 단체교섭 기법은 기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노사관계 선진화와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

● 노순규 원장



1955년 생으로 동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기업경영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실산업교육원 및 영남간실기술교육원 전문교수, 새마을본부 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사관계, 리더십, 경영전략 등에 관한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조직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 <노동조합의 개혁과 역할>, <리더의 자기관리와 성공법칙> 등의 저서가 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고객가치경영

제1715회 11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스위트를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상담역

고객가치경영은 장기적으로 유일한 경영의 왕도이다. 기업은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이 고객을 지어 나가는(build-up) 것이며, 지은 공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지은 소비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고객을 짓는다는 것, 고객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고객가치 증진으로써만 가능하고, 그 성과는 브랜드 자산가치(Brand Equity)로 누적된다.

지금까지의 고객만족 경영체제의 핵심은 '고객을 위한 가치(Value for Customers)' 제공으로 기업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힘쓰고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체제로 다루기 힘든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가치, 즉 능동적인 고객 선택과 고객가치의 개발, 그리고 고객에 의한 가치, 즉 고객에 의한 자발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개의 축을 고객을 위한 가치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고객가치 경영체제의 핵심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과거 용인자연농원을 현재의 에버랜드 체제로 탈바꿈시킨 주역으로 삼성의 성공신화와 함께 해온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상담역을 초빙하여 삼성맨 42년, 삼성 CEO 16년의 이력을 가진 삼성그룹 최장수 CEO로서 살아온 자신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지속적 인 변화, 혁신, 창조, 그리고 고객가치경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상대 농과대학 졸업 | 경상대 명예경영학 박사 | 호텔신라 부총지배인 | 제주신라 총지배인(상무이사) |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본부장(전무이사) | 중앙개발(주) 사장 | 삼성에버랜드(주) 사장 | (주)호텔신라 사장 | 삼성석유화학(주) 사장 |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

〈상훈〉 한국경영혁신대상, 한국리더십대상, 한국품질경영인 대상, 고객만족경영대상 특별상 외

〈저서〉 마음을 얻어야 세상을 얻는다

■ 고향을 돌아보라, 천사여

제1716회 11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달려온 사람들은 정작 목표를 이루고도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철학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이다.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통합적 인문·사회과학 교육을 통해 지적·정서적으로 성숙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도정일 교수를 초대 대학장으로 모시고 두 번째 학기를 맞고 있다. 후마니타스는 '문명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사용했던 말이다. 경희대에 입학하는 모든 학부생은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교양 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목들이 어찌 학생들에게만 해당되겠는가? 도 교수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지만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절대가치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쟁이 삶이 되어 버린 시대, 각각의 영역에서 세상을 키워나갈 인재들에게 인문학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숙제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최근 인문학 열풍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로서 접근, 인간다운 인간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의 개편을 단행한 도정일 학장을 초빙하여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와 같은 철학적 사유들을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美 하와이대 영문학 석. 박사 |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 중앙도서관장, 명예교수 | 대통령지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장 | KBS 객원해설위원 | 한국작가회의 비평위원장 | (재)책임는사회문화재단 대표 | 문학평론가, 시민운동가

〈상훈〉 제7회 소천비평문학상, 제43회 현대문학상, 교육부총리표창, 제10회 일맥문화대상 사회봉사상 외

〈저서〉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대담-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화, 시장경제주의와 문명의 아반,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전환의 시대 외

■ 인문학이라는 측수에 관하여

제1717회 11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달드룸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ECD)

15초. TV 광고 한 편의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광고이다. 광고는 튀는 아이디어와 눈길을 사로잡는 강렬한 이미지만으로 승부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는 잘 말해진 진실이고 소통이다. 때문에 광고의 가장 큰 무기는 인문학적 소양이다.

우리나라 광고계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은 모든 이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광고는 인문학적 시각에서 '창의력'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단지 스치듯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견문'하듯 본다면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다며, 삶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듣는 노력, 즉 'Insight'가 돋보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오직 새로운 시선만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사람을, 그리고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문학이 생활이다'라는 인생철학으로 광고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초빙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소통을 이루기 위한 Insight와 광고 속에 들어있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미 뉴욕대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 | 제일기획 근무 | 2002년 칸국제광고제 심사위원 | 2000년 아시아태평양광고제 심사위원

〈광고〉KTF 'Have a good time', 경동나비엔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SK에너지 '생각이 에너지다', 박카스 '당신의 피로회복제는', SK텔레콤 '생활의 중심', NHN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 LG전자 엑스캔버스 '엑스캔버스하다' 외

〈상훈〉조선일보 광고대상, 진로광고대상, 대한민국 광고대상 외

〈저서〉나는 뉴욕을 질투한다, 청바지 세상을 점령하다, 아트와 나의 행복한 결혼,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도끼다 외

■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제1718회 11월 2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달드룸
한비야 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멘토, 우리에게 가슴 뛰는 삶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던 한비야. '바람의 딸'로 불리며 세계 오지를 여행하던 그녀는 어느 날 국제 NGO단체인 월드비전의 긴급구호 팀장으로 국제구호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UN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중앙긴급대응기금의 활용과 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한비야, 그녀의 인생은 국제홍보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어린 시절 계획한 '걸어서 세계일주'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여행길에 오른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도전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녀는 나의 성공이 나만의 성공으로 그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지 되묻는다. 그녀가 말하는 성공이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모두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져 이룩고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일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순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통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오지여행가에서 국제구호활동가로, 그리고 다시 UN 자문위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한비야 UN 자문위원을 초빙하여 삶의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홍익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美 유타대 국제홍보학 석사 | 7년간 세계 오지여행 |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 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

〈상훈〉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평화를 만드는 100인, YWCA 젊은 지도자상 외

〈저서〉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바람의 딸 우리 땅에서 다, 한비야의 중국견문록,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건 사랑이었네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사람을 바꾸는 공감의 힘

제1719회 12월 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의원 원장

2011년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낸 사람이 있다. 60만 명의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이 시대 젊은이들의 멘토로서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다. 지방도시에서 외과의사로 출발하여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그는 냉철한 경제전문가, 통찰력 넘치는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등으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수식어가 모자랄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가 지금 '공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동정(Sympathy)은 수혜, 시혜적 관점에서 베푸는 의미인 반면, 공감(Empathy)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공감'은 막연한 동정이나 관심이 아니라 그네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네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진정으로 그네들과 '동행'할 때 그 의미가 실현된다. 현 시대가 당착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소통의 부재, 즉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내딛는 천 걸음보다 천 명이 손잡고 나아가는 한 걸음의 가치'를 말하는 지금, 소통과 공감은 계층을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박경철 원장을 초빙하여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소통과 공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영남대 의학과 졸업 | 매일경제TV MBN 전문위원 | 머니투데이 편집국 전문위원 | 한국소아암재단 고문 | (사)한국소아암당뇨인협회 이사장 |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

<저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외

■ 회복탄력성과 소통능력의 리더십

제1720회 12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주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회복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심리학에서는 주로 '크고 작은 역경이나 시련,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다.

회복탄력성은 근육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선천적으로 근육질이어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있듯이 선천적인 회복탄력성 수준 역시 제각각이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의 긍정성을 높여야 하는데, 먼저 긍정성을 '습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긍정성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긍정적 정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긍정적 인간으로 변해야 한다. 문제해결능력은 긍정적 정서를 심어줄 때 커지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도 결정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를 초빙하여 뇌에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 석·박사 | 보스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한국인지과학회 이사 | HCI 인문사회과학 학술위원장 | 한국마음두뇌교육협의회 이사 | KBS 2TV '생방송 백인토론', EBS '생방송 토론가페' 진행 | 미술평론가

<상훈> 동아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 부문 당선, 2001년 한국언론학회 신진교수 우수논문상, 2010 연세대 우수강의 교수 선정

<저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회복탄력성 외

12월

■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의 세계경제

제1721회 12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 경제에 대한 내년도 성장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국제 투자 은행은 2%대 후반의 성장을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한때 내년도 성장을 예측치가 5%까지 제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다. 원인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중요한 우리 경제로서는 재정위기가 실물위기로 연결되어 구매력 감소로 나타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공황 이후 각국 정부는 틈만 나면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고, 이렇게 쌓인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수요는 항상 세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번 쌓인 국가부채는 줄이기가 힘들다. 우리도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등 현명한 재정 집행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펼쳐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나마 GDP 35% 정도의 국가부채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번 위기를 잘 피해간다면 우리 경제의 위상은 다시 한 번 제고되고 세계시장에 우뚝 설 기회를 맞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시립대의 윤창현 교수를 초빙하여 글로벌 금융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경제의 2012년을 전망해보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물리학과,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美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고려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 | 금융산업발전심의위 글로벌 금융분과위원장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 교과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광고> 파생금융상품3, 4권, 파생금융상품론, 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공) 외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나는 CEO다”

송년파티에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22일(목) 오후 6시~
장소: 컨벤션 디아망(삼성동)
문의: 인간개발연구원(02-2203-3500)

*상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Human Development & Environment Forum

좋은사람이 좋은



그동안 10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100편이나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이다. 50여 편의 작품을 촬영한 초기 10여 년 동안은 그야말로 난작을 했다. 우리네 삶과는 무관하게 흥행을 위한 작품만을 찍었다. 100여 편 중 반 정도는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70여 편이 남아있다. 결국 우습지도 않게 영화를 찍어대던 시대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

제170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나의 삶 ‘영화 이야기’

밥벌이로 시작한 영화, 10여 년의 난작

초기 10년 사이에 50여 편의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라는 데뷔작이 히트를 쳤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히트를 하고 고향 장성에 내려갔다. 그 지역에 영화를 배급해 흥행을 하신 분이 먼 친척지간이었는데, 내 영화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나를 데리고 백주대낮에 광주의 한 ‘기생잡’엘 갔다. 아쟁 등 전통 국악기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 때 처음으로 공옥진의 ‘병신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소리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판소리를 하는데, 정말 일이 빠질 정도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큰 울림이 올 정도의 자극이었다. 그때부터 판소리에 대해서, 또 우리 국악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각인하게 되었다. 1978년 이청준 선생의 단편 <서편제>를 읽으면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당시는 판소리를 배운 연기자도

없고, 소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설피게 시작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영화에 투자할 사람도 없었기에 그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빨치산 출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은 좌익으로 낙인찍혔고, 떠돌이로 객지생활을 하는 외중에 영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본 적도 별로 없었다. 고향 장성에는 영화를 볼 곳도 없었다. 영화를 하고 싶어할만한 동기가 없었던 환경인 셈이다.

그러다 부산 노동관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화계에 입문했는데, 그 때는 빨치산 활동하다가 죽은 친척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마구잡이로 영화를 찍을 때도 좋은 영화를 찍어서 후세에 남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단지 먹고 살 방편으로 영화를 찍기에 급급했다.

그런 환경에서 영화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3류나 2류 정도의 수준까지는 내 영화의 격을 높여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미국 영화의 아류를 찍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 찍을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한국인만의 삶, 문화적 개성을 영화로

‘영화감독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한국영화를 만들자는 결론을 얻었다. 그 결론 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10여 년 동안 미국 영화의 아류를 찍는 과정에서 삶과는 전혀 무관한 픽션을 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삶을 찍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나를 포함한 동시대를 살아낸 민족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질곡을 영화에 담으면 내 영화가 기법상으로는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개성은 돋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찍어야 미국영화와 다른 한국영화다움이 만들어질까? 미국영화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생활감정도 즉시 얼굴이나 몸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속에 담아두고 산다. 삶 자체가 서양 사람들처럼 현란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는 느낌의 영화를 찍고자 10년간 고생을 했다.

왜 10년 동안이나 미국영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동안 미국영화가 체질화되어서 찍기만 하면 미국영화 아류가 됐다. 결국 체질을 개선하는데 10년이 걸린 것이다.

1980년대 들어와 불교를 소재로 한 <만다라> 등 좌우익 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군사정권의 통제 속에서도 그런 작품

을 만들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낸 이야기를 찍으면서 외국에 작품이 출품되고, 그로 인해 외국에 나가는 기회도 생겼다.

10년의 체질개선, 인정받기 시작한 한국영화

10년에 걸쳐 내 영화의 체질개선을 시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김창숙에게 아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국책 영화 <증인>을 찍으면서였다. 이 작품은 대만에서 개최되는 아태영화제에 출품됐는데, 정부에서 고생했으니 영화제에 참석하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연좌제에 시달리던 나는 이때 생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홍콩 국적의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하자 갑자기 한국어가 사라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만 들렸다. 한국은 나에게 영화를 찍을 기회를 제공한 동시에 엄청난 정신적 압박도 가하던 나라였다. 그런데 비행기에 타자마자 그런 한국이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당시 세계는 가난, 분단, 전쟁, 독재의 나라 한국에 관심이 없었다. 나 역시 평소에 기회만 되면 일본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에서 그 생각이 바뀌고 말았다. 세계의 버림을 받은 이 나라를 나까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남북으로 갈려 서로 총질이 나 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나머지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사랑해줄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와는 별다른 풍경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정을 붙였고, 영화에 그것을 담아냈다.

그런데 도리어 세계 영화계는 그렇게 만들어낸 한국 영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만다라>가 굉장한 관심을 받더니 <씨받이>의 강수연, <아다다>의 신혜수가 여우주연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주변에서 ‘해외에 여배우상만 사냥하러 다니느냐? 이제 네 상도 쟁겨야 할 것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가 메모를 하면서 강연을 듣고있다.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들렸다. 그러나 영화적 완성도를 높이면 내게도 무슨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

그러던 중 김두한을 소재로 한 <장군의 아들>을 찍자는 제의를 받았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거절했다. 이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 저질 액션 영화를 양산하던 악몽의 시절이 떠올라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하지만 '홍행도 안 되는 영화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느라 지쳤으니 우선 홍행 영화 한 편만 찍자'는 제안에 결국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저급 영화로 찍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우 전원을 신인으로 기용하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대 모험을 시도했다. 그렇게 박상민, 신현준 등 신인들을 기용했는데, 결국 한국 영화의 홍행 기록을 깨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망해도 좋았던 <서편제>, 한국영화새 기록

그 다음 촬영에 들어간 작품이 <서편제>였다. 판소리를 영화로 찍겠다는 것은 감독 초기부터 가슴에 품어온 내 평생의 화두였다. '절대 홍행할 일이 없으니 망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다만 젊은 사람들에게 판소리를 알리고, 외국영화제에도 출품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서편제>는 홍행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제작된 첫 번째 영화일 것이다.

<서편제>를 찍으면서 감독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판소리는 사실 듣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다. 듣고 맛을 알아채는 것 또한 어렵다. 이것을 '판소리가 보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고, 판소리가 들리게 찍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그 분위기를 살려냄으로써 영상으로 소리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졌다.

그러나 '판소리가 보이는 영상'이라는 것은 말이 쉽지 감독인 나조차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랐다. 감독이 모르니 연기자도 알 리가 없었다. 스태프들도 모른 채 따라오는 상황이었다. 소신만 있었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스태프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결국 모두를 속이면서 촬영을 이어갔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배워나갔다. 이 노래를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보이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배워가면서 촬영을 이어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업이 술술 풀려나갔다. 예컨대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막막해질 때도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귀신이 데려다준 것처럼 좋은 장소가 나타났다. 김소희 명창은 흥행 기록을 다시 갱 <서편제>에 대하여 "억울하게 살다간 판소리 명창의 원혼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보태준 영화"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학생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해줬다. <서편제>는 결국 대단한 흥행을 했다. 오정해, 김명곤이 열연한 <서편제>는 국내 최초 100만 관객 돌파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자신감을 얻은 나는 판소리를 소재로 한 본격적인 영화 <춘향전>을 찍었다. 신세대 배우 이효정, 조승우를 발탁한 이 영화는 칸영화제 본선과 미국 영화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에서 시사회를 가졌을 때의 일이다. 실험영화의 대가인 스텐 브래키지가 만나자고 하더니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영화 잘 봤다. 세계 각국에는 고전이 있는데, 한국의 춘향전도 그에 못지않다. 판소리도 처음에는 생경하게 들렸지만 듣다 보



스모이 특이서 영화되고 영화가 북에서 인생이되는... 임광택 2011.9.1



강연 후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있는 임광택 감독

니 좋았다. 한국인만 즐겼던 춘향전을 이제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다. 우리 조상이 창조한 예술을 영화에 담기 위해 노력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에 만족하는 영화는 못 만들 것

지난 50년 동안을 영화감독으로서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초기 작품 중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50여 작품을 빼고 후반에 들어서 만든 작품 중 ‘도리 없이 이 영화는 꼭 찍어야지’하는 사명감이 드는 작품들이 있다. 그런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영화를 여러 편 찍어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감독은 관객이 있어야 감독으로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관객이 외면하고 돌아서면 그 날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저질러 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험을 걸고 <서편제> 같은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초조해 하고, 스태프나 연기자들조차 따라오기 힘든 작업을 저지르고 도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으며, 최근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다.

최신작 <달빛 길어올리기>는 흥행에 대참패를 했다. 신인감독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다시는 감독을 못 할 것이다. 다행히 나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런 모험, 도전을 많이 해왔고, 그랬을 때 성과도 더 컸던 것 같다.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임권택은 시행착오의 대가’라고 한다. 저지르는 것도 많고 안 될 것도 많이 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나는 영화를 완성시켜 놓으면 거의 보지 않는다. 보고 있으면 열이 받기 때문이다. ‘그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겨우 저 정도밖에 못 했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과 너무 자주 만난다.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영화인생을 끝낼 때까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영화는 만들지 못하고 끝날 것 같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삼는다. 내 스스로 이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내 평생 만들 수 없을 것이다. **KH1**





지난 9월 일어났던 한전 정전사태가 자칫 블랙아웃으로 이어졌다면 경제, 안보, 사회가 완전 마비되는 민족적인 대재앙이 될 뻔했다. 처음에는 예비 전력이 148만kw라더니 31만kw, 24만kw로 수정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171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

국회에서 정전사태를 다루면서 전력과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옴의 법칙에 따르면 과부하로 전력이 떨어질 경우 주파수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60.2~59.8Hz로 유지되면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59.8Hz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주파수 계산 방식으로 재어보니 정전 당시

전력이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된 기간이 100분이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거래소는 순환정전을 결정했고, 이 결단이 우리나라의 블랙아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하루 7천만kw의 전기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제조업, 산업화의 나라인 대한민국 전력 계통 고위직에 이공계 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장관은 경제학 전공, 차관은 행

정고시 출신이고, 전력자원실장, 정책실장, 전력과장도 모두 인문계 출신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삼성이 아이폰을 팔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대당 4~5달러를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다. 실제 특허청 국정감사를 해보면, 1년에 기술 관련 무역수지 적자가 46억 달러(5조 원)에 이른다. 물론 삼성도 50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미국 IBM의 6000개에 크게 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BM이 특허료로만 매년 1조 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에 비하면 삼성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퀄컴은 500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이지만 현재 매출의 30%를 특허에서 챙기고 있다. 원천기술, 기본기술 없이 응용기술, 산업기술만 가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마저 장악하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모두 몰락했다. 결국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는 실정인데도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 불리고 있다. 반도체 분야도 같은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금액이 반도체를 수출하는 금액보다 더 높다. 결국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 없는 IT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없는 반도체 강국'의 허상에서 벗어나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사회구조 바꿔야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창의적인 발상으로 교육의 근본을 혁신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 직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 이 둘을 연결하는 정책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성공단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핵문제, 금강산폐쇄 등 정치·안보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성에 투자한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또 북한의 에너지 부족으로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미FTA 과정에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표기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쪽에 북한공단을 만드는 역발상을 생각했다. 남북 상황이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강화도 북단에 설비를 갖추고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공단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향후 30년 동안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면 휴전선 일대에는 탱크가 아닌 굴뚝이 세워질 것이다. 당분간 통일을 강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남한의 제조업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양쪽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63개나 된다. 우리나라 2개, 일본이 3개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숫자이다. 이런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국방R&D센터가 있다. 인구 700만으로 수억의 아랍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역량을 국방에 쏟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방을 과학기술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탈피오트'라는 조직을 탄생시켰다. 이 조직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재를 1년에 60~100명씩 뽑아 7년간 근무시키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충분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나와 창업을 하는데, 창업에서 상장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해준다. 이런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국방을 R&D가 되는 나라로 만든 것이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군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국방비를 늘려 과학 국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공계 고급인재를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연구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창조적 상상력은 개인과 나라를 살린다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는 것은 개인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7~8년 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정치생활을 시작한 이후 당적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번 낙선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낙선했던 이후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까 고민하다가 치과의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10년간 묵혀두었던 의사 면허를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처음 만든 병원이 전통문화와 첨단의료로 통섭한 한옥치과였다.

내 발상에 다른 의사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서양의료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한옥에 치과를 차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옥은 좁고, 구조도 좁고, 가격 또한 비싸다. 건축재료 때문에 별레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옥에 서양식 병원을 도입하는 경우는 없었고, 결국 나는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최초의 한옥치과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우려와는 달리 치과는 대박이 났다.

처음 한옥치과를 생각하게 된 것은 책에서 발견한 그림 한 장 때문이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 국장 어가 행렬을 담은 흑백사진 속의 간판 ‘이 해 박는 집’을 보고 치과 이름으로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 한글간판으로 지금도 예쁜 한글을 조사할 때 종종 거론되고 있다.

창조는 서로 다른 장르와 문화, 기술을 융합하는데서 나온다. 우리는 그 경계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미술에는 독립예술, 즉 비주류미술이라는 것이 있다. 미술이 왜 캔버스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된 미술로 안도 다다오의 노출크크리트 기법이 대표적이다. 그는 콘크리트 자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그대로 노출시켜서 건물을 완성했고, 이것이 세계의 건축 장르를 바꾸었다.

미국 현대미술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템즈강 유역의 테이트모던 갤러리는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기차역을 바꾸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모은 명소가 만들었다.

이처럼 용도가 달랐던 것을 모두 뜯어내지 않고 재활용하여 그 장소 혹은 물건의 이야기를 살리는 기법이 현대미술의 흐름이다. 나는 이것을 병원에 적용했고, 현대미술과 첨단의료의 융합한 창고형 치과는 또 다른 성공케이스의 탄생이었다.

병원 오픈 비용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 4억 원이 인테리어비용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자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특이한 공간을 찾다가 경기도 안산에 방치된 건물을 찾아냈다. 화재가 난 이후 5년간 방치된 나이트클럽이었는데, 화재의 흔적을 그대로 둔 채 시공을 감행했다. 불에 탄 철골 등을 그대로 남겨두고, 1억 원 상당의 블라인드비용을 블록으로 대체해

절감시켰다. 시야는 확보되지만 빛은 통과되지 않는 블록블라인드는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개업식 날 사람들이 인테리어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를 물어보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러나 이 창고형 병원은 여러 언론에서 역발상 디자인한 병원으로 소개되었고, 그 덕분에 한옥으로 치과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다.

정원이 있는 한옥을 치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원을 덮을 시설이 필요했다. 한옥 특성상 겨울 추위를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시공비가 필요했지만 나는 비닐하우스공법으로 탈착식 지붕을 만들어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200만 원으로 기초 시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창조적 상상력은 언제 어디서나 발휘할 수 있는데, GS칼텍스 임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도 있다. 한국은 하루 23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야 유지된다. 따라서 유조선에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유국에서 석유를 싣고 올 때는 괜찮지만 갈 때는 문제가 있다. 빈 배는 물에 잘 뜨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도 없는 바닷물을 채우고 갔다가 현지에서 다시 버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각한 것이 식수를 수출하는 것이었다. 두바이, 요르단 등 중동은 연간 강우량이 50ml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이다. 여기에 식수를 가져가 판매해서 석유 대금을 조금이라도 공제할 수만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GS칼텍스에서 선박 위에 생수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창조적 상상력은 ‘경계’에서 나온다

바야흐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혁신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창조적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창의성은 서로 다른 경험과 장르가 결합하는 경계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등은 모두 20세 전후의 나이에 창업했다. 이들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인 케이스다. 이렇게 창조적 상상력이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융성한다.

이러한 기반은 모두 ‘경계’에서 나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사일까, 미술가일까, 수학자일까? 모두 포함된다. 미켈란젤로나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이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과학과 예술이 창조력과 상상력을 공통의 뿌리로 가지고 있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예술을 하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학문이 세분화될수록 우리의 창조력은 절감되는데, 잡종과 하이브리드를 중시하는 시대에는 교집합에 주목해야 한다. 한류와 난류, 경상도와 전라도,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만나는 경계와 교집합의 지점에서 새로

운 창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결합해 새로운 불교를 창조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거점인 셈이다.

한국은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문화의 창조력이 좋다. 일본문화 개방 당시 일본의 앞선 예술문화가 한국의 예술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막상 개방하자 한류가 일본에 상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 한국은 문을 열면 이기고 문을 닫으면 진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를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진취적 기상으로 국제정세에 뛰어들어야 한다. 'Doing First, Something Difference(가장 먼저 뭔가 다르게 하라)'의 정신을 새길 필요가 있다. 나 혹은 우리나라를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와 같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도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야 한다.

창조와 도전의 원천은 고통

내셔널지오그래픽 광고에 '자 함께 길을 잃을까요?'라는 문구가 있다. 만약 '나는 길을 찾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도전'과 '창조'의 기회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잃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창조와 도전의 원천은 고통이다.

나도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하고 도리어 많은 것을 배웠다. 당선되고 겸손한 자 없고, 낙선하고 교만한 자 없다.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지려 해도 당선되면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남의 충고를 새겨듣기 힘들다. 반면 낙선하고 나면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고, 굽힐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세는 창조에도 큰 영향을 준다.

다산 정약용은 '추서(推細)'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용서와 다르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것을 의미한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소홀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살아가야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 **KH&M**



어느 판사의 눈물

법원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해 잘못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피해를 본 사람에겐 보상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부부의 갈등을 다루는 가사사건에서는 부부 중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가려내는 것이 어렵고, 또 무의미하다.



● 이남옥교수

독일 올덴부르크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가족·부부치료 전문가 및 독일 단기치료 전문가, 독일 갈등조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독일 Vechta University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한국가족상담협회 수련감독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서울부부가족치료연구소 소장, 서울사이버대 가족상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원의 조정이 무의미한 가사사건

각자의 행동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행동이 나오게 한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듣다보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필자도 서울가정법원에서 7년째 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부부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실감하고 있다.

법원을 찾는 당사자들은 법원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 또 높으신 판사님들 앞에 주눅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사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판사의 판결이야말로 가장 공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사님들이 억울한 처지를 잘 이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양쪽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할까봐 긴장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법원의 소송과 판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소송 당사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법원의 소송사건들은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원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판사의 최고의 판결보다 당사자들의 최악의 조정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당사자들 스스로의 판단과 해결이 결정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에 기댈 수 없는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권

필자는 친분이 있는 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감동적인 조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부부도 매우 긴장한 채로 법원을 찾았다. 그들의 분쟁사유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였다. 그들은 부부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했다. 부인은

남편과 떨어져 살고 싶은 생각에 무조건 남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 주겠다고 했었다. 그 중에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있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고 했고 행여 부인이 키운다고 하면 갈등이 더 커질까 봐 그냥 들어주었다.

사실 남편은 아이를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양육권을 지정받은 남편은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아이를 찾는 횟수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보는 상황에서 부인은 아이를 자주 찾아 갈 수가 없었다. 갈등의 원인에는 고부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부인에게 매우 두렵고 거북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이와 헤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인은 아이가 너무 그리웠다. 아이를 영영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기댈 곳은 법뿐이었다. 법적으로 자신은 아이의 엄마이고 엄마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법은 자신의 편을 들어 줄 것 같았다.

법원에 소장을 내고 남편이 양육자로 부족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입증했다. 또 자신이 엄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양육권을 엄마에게 변경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을 통해서도 그리 녹록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문제는 법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또 판사가 납득한다고 해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남편과의 싸움의 연장이었다.

남편은 부인의 소장을 받고 펄펄 뛰었다. 그동안 잠잠했던 부인이 자신에게 아버지로서의 부족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에 매우 분노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고 계시지만 본인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여러모로 무척이나 힘들었다. 어머니께 맡겨 놓긴 했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송했고, 또 아이에게도 미안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억울하기도 했고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시콜콜 자신의 양육에 대해 비난하고 나오는 아내가 너무 미웠다. 이혼 후 한동안 잠잠했던 부부싸움이 다시 불붙는 듯했다. 남편은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아내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나섰다.

아이의 입장에서 흘린 판사의 눈물

판사는 이 싸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양육권 변경이라는 본질을 떠나 또다시 부부싸움으로 돼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들

은 정작 아이를 위해 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았고 서로의 잘못만 들춰내기에 급급했다. 그런 부부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판사는 아이를 불러 누구와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았다. 정작 아이의 대답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지금 까지처럼 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뜻밖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아이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사람은 할머니였던 것이다. 누가 양육권을 가져야 할지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부부의 양육권 분쟁은 부부 분쟁의 연장이 되어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날카로워졌다. 결국 남편도 아이를 데려가라고 소리 지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 대한 비난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 사이에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판사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이가 너무 가여웠다.

판사는 싸우는 어른들을 모두 내보내고 아이만 남게 했다. 그리고는 아이를 꼭 안으면서 “아가야, 어른들을 모두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네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판사는 한참 후에 엄마를 들어오게 했다. 엄마에게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하려니 판사 역시 목이 메었다. 판사가 목이 메어 하는 것을 보자 엄마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판사 역시 엄마구나.’ 엄마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 부인은 그제야 자신들의 부부갈등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우선 할머니에게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엄마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매일 찾기로 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 대한 비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남편의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인의 변화는 남편의 감정을 움직였다. 더 이상 싸움의 상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갖게 했다. 한없이 꼬여 가던 문제가 참으로 맥없이 풀려갔다. 변화의 시작은 판사의 눈물이었다. 백 마디 옳은 말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방울의 눈물이 사람을 움직이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

역사와 문화의 품격으로 만들어 가는 명품 국가브랜드 역사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한국은 경제규모, 기업성장 등 하드파워에서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지만 국민성과 문화, 정책 등 소프트파워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의식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생을 역사학자와 교육자로 살아온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여성의 브랜드를 키워왔던 그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문화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있어 ‘문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지갑보다 먼저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감동이라는 판단에서다.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역설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모르면 세계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브랜드란 ‘지속가능한 신용’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브랜드이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인과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노력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브랜드라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이야기는 막힘없이 유쾌했다. 뛰어난 언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신념으로 우리 스스로도 잊고 있던 문화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명품 국가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우리 역사의 재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먼저 ‘국가브랜드’라는 말의 정의와 함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2009년 1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국가의 브랜드를 위해 모든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죠.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의 중장기 목표, 비전,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협력 및 국민 참여 확대 강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3년여가 지나면서 ‘국가브랜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데, 국가의 품격, 즉 국격이 바로 국가브랜드입니다. 그동안 국가브랜드는 상품, 경제, 기업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한 나라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국가브랜드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거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역사와 세계화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역사의 가치를 현재와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이 하드마케팅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문화를 키워나가는 소프트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내실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2011.4.8 브랜드위 4차 보고회의

● 이배용 위원장

1947년 생으로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 석사, 서강대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평생교육원장, 인문과학대학장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다. 총장 재임 기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오경근 원장



이배용 위원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취임 1년을 맞으셨습니다. 그간의 성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세기 후반부터 경제적 성장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역사가 있는 나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DNA를 찾아서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K-POP 등을 중심으로 한류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한류에 고품격의 우리 문화를 재창조해 명품 콘텐츠로 만들어 간다면, 그래서 이것이 문화와 인재, 교육, 역사와 어우러져 현대화되고 세계화되면 한류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많은 국가대표를 내보내 선전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다 많은 콘텐츠를 세계에 내보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의 우수한 역사를 통해 세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서원, 사찰 등 전통문화자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 위원회에서는 전국에 흩어진 서원과 사찰들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원과 사찰은 소중한 유형문화유산으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존중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그 DNA가 바로 서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서원은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만든 서원이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서원에서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배워야 할 이치를 함께 가르치

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뒀다는 것은 21세기 세계인들이 목말라 하는 교육적 덕목이기에 각 서원에 담긴 사연을 ‘스토리’로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500여 개 서원 중 원형보존과 사적지로서의 가치 등을 감안해 9개 서원을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사찰 역시 우리나라가 1천 년 이상 불교를 국가의 지배사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여 개의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비해 아직 해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만든 넥타이보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넥타이가 훨씬 고가에 판매돼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제품을 잘 못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관광, 국민성이 저평가되면서 인지도, 호감도가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제품만을 사러 가는 건 아닙니다. 문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30%나 돼요. 프랑스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문화입니다. 문화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 신뢰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만 여기에 우리 문화의 품격을 더하지 못했어요. 포장할 줄도 모르고 스토리를 입힐 줄도 몰랐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문화적 소프트웨어, 즉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국민성 등을 바꿔야 합니다. 문화라는 보석을 다듬고, 친절하고 따뜻한 국민성을 키워야죠. 국민들의 친절, 따뜻함, 질서유지 등은 관광자원을 유치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나라라는 점을 부각시키면 프리미엄을 얻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 입증됐듯이 대한민국의 영혼 속에는 세계 화합의 장을 이끌 DNA가 분명 존재합니다.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끼리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알아주고 평가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정성



2011.8.25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비범법퍼포먼스



2011.8.25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커팅식

입니다.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문화와 봉사'로, 진정성을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면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情)을 높이 평가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인과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노력이 국격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보고, 해외봉사단(WFK)을 세계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진정성으로 다가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재능, 문화, 교육의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전통문화자산의 유네스코 등재 작업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알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해외 블로거를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알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주간(Korea Week)'이라는 행사는 특정 국가를 방문해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해 행사를 가졌고, 곧 파리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파리에 가서 K-POP과 드라마가 한류의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고품격 전통문화가 한류의 원천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는 '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세계와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대규모 종합박람회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는 한류의 원천을 우리 역사와 전통에서 찾아본 의미 있는 행사였죠. 4일 동안 약 13만 명이 방문해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한글은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창조물입니다. 지식의 나눔, 백성과의 소통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배려와 화합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어요. 이를 통해 문맹이었던 백성들은 광명을 찾게 됐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진정성을 감안하면 한글 창제는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관심영역 밖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데, 세종대왕뿐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더십이 오늘날의 화두인데, 외국 인물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을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밖에도 태권도나 아리랑 같은 문화자산도 좀 더 체계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고, 서원과 사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화할 자산은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 브랜드가 많을수록 우리를 세계에 알리는 일은 더욱 쉬워질 겁니다.

현재 한류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일본의 반한류 움직임도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유사성이 많은 나라인데, 최근 일본에서 반한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한류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류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일본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한류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일본대사나 일본 사람들에게 반한류 현상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반한류는 일부의 이야기지 일본 사람들 전체가 한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상호 교류를 강화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의 행동에 신경 쓰고 서로 경직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

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한류에 대해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역사가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역사에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혼이 있는 민족만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존재이지만 오늘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결말이 모두 끝난 것을 보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이 희망의 결과를 낳았고, 어떤 시작이 불행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교훈과 정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대비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도 역사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져오면 훨씬 탄탄한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역사를 흔히 나침반, 거울이라고도 하고 스승, 교과서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역사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뜻에 따라 내일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옛것에 함몰되면 역사를 구태의연한 것으로 속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디자인시대라고 하는데, 전통문화를 보면 모든 것에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보자기도 그렇고, 집안의 창문을 봐도 디자인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전통문화 자체가 디자인의 보고인 셈입니다.

이화여대 총장 시절이나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홍보물을 만들 일이 많은데, 이를 좀 더 효율적이고 감각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새롭게 창조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창조정신이 가미된다면 훨씬 더 품격 있는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옛것을 본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의 정신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주전자 정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법고창신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머리에 쏙 들어오고 가슴에 와 닿는 확실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주전자 정신’이죠. 주전자의 ‘주’는 주인정신을 갖자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남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미루면 안 만들어집니다.

‘진’은 전문성입니다.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실력이 탄탄해야 합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른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죠. ‘자’는 자긍심입니다.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남에게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것을 하찮게 여기면 절대 남에게 자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에 자랑할 만 한 것을 많이 내놓자는 겁니다. 자긍심과 감동을 가지면 상대의 지갑을 여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모아 ‘주전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전자에 든 물을 목마른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눔의 정신, 헌신, 사랑 등 물이 갖는 의미를 더해 이웃과 함께 가자는 포용의 정신이죠. 나아가 오늘을 사는 세상이 전문가가 아니라 주전자가 구원해주는 내일이 있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브랜드 관련 정책의 중장기 집행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불안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기반을 다져서 10년, 20년 후에 꽃을 피울 것도 구축해야 하거든요. 국가브랜드는 대한민국 전체의 품격을 기반으로 세계의 지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정권 차원의 전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국회에서 법률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글로벌 여성리더를 키우는 일에 매진하신 것 역시 여성의 브랜드를 키우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21세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의 잠재력은 남성에 못지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들보다 뛰어나죠. 이화여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했는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숨어있던 잠재력이 발산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리천장만 깨뜨릴 날을 기다릴 정도로 다양한 여성 맨파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집중도가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여성들은 부드러운, 섬세함이 강점입니다. 20세기의 하드파워시대가 소프트파워의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



이화여대 총장 재임시절 학교를 방문한 힐러리



이 위원장이 직접 안내를 받았던 경복궁 문화탐방 행사

서 여성들의 부드러움, 섬세함을 이용해 도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 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희망이 생기고 지식의 힘이 생기니까 기존 남성의 영역 에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ROIC가 출범했고, 여성 장군도 배출됐죠. 남성의 영역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드럽고 섬세함에 더해 어머니의 포용력이 더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여성들이 주변이 아니라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시 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많은 것을 연마해야 합니다. 남성의 장점이라면 담대함인데, 그것 또한 여성들이 장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양성평등 속에서 서로 조 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가 그 힘을 다시 하나로 모으면 국가의 브랜드 가 치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또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 육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 자신이 평생 교육자로서 살아왔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 다'라는 신념이 우리나라를 교육강국으로 만들어왔다고 믿고 있습니 다. 우리가 가진 힘은 결국 '인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 가 는 거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위원회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 지킴이 교육, 문화소양 교육, 봉사 소양 연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학생들의 경복궁 답사, 케임브리지대 총장을 비롯한 세계의 대학총장 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외국정상 부인과 대사부인들의 창덕궁 답 사 등도 제가 직접 안내를 맡아 찬란한 조선왕조 500년 역사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간개발연 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간개발연구원에 처음 강연을 갔을 때 강연장에 모인 분들의 열기에도 놀랐지만 그런 열기를 가진 교육현장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의 활동은 신지식운동이라 할 만 합니다.

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 문에 우리 국민들이 선진 국민으로서의 인식과 지식, 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시의적절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이 려게 교육 열기가 높은가?' 할 정도로 지방으로 갈수록 교육에 대한 열정이 커요. 그런 욕구가 샘솟게 만들어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지 식기반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지요.

연구원이 이제 창립 37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자산 가치도 중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역브랜드입니다. 그동안은 지역 간 소 통이 안 돼서 다른 지역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 어요. 그런데 교육이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교육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역과 지역의 꽃을 피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꽃을 피우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의 활동에 무한 한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눈물의 장학금

푸른 하늘에는 태극기가 펄럭인다. 아리랑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한마당에는 차마저고리를 입은 여인네들이 들뜬 기분으로 분주히 오간다. 마치 그 옛날 시골 소학교 운동회 날 같았다. '추석맞이 문화 한마당'을 알리는 하얀색 현수막이 고려인 문화센터 건물옥상에서 나부낀다. 요란하던 드럼소리가 갑자기 멈추자 젊은 남녀 사회자가 단상에 오른다. 이어서 본대회장인 김 니콜라이의 개회사가 있었다. 그는 작은 체구에 검게 탄 얼굴로, 성공한 이곳 기업인이며, 지역 발전에 크게 공로를 세운 분이였다. 이어서 우수리스크의 부시장인 금발의 세르비노 여성 부시장과 우리나라 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끝으로 어제 서울에서 이곳에 도착한 '최재형장학회 회장'이라며 나의 소개가 있었다. 단상에 오른 나는 최재형장학회 발족의 경위와 앞으로 더 많은 이곳 학생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이번에 장학생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됐다. '강 띠지아나 블라디보스토크 극 동대학 국제관계학과 3학년, 송 나타샤 우수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과, 강 스타스 우수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과' 이렇게 이름이 불리니 남녀 학생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 나는 장학금이 든 흰 봉투를 하나씩

전달하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손을 잡고 격려했다.

최재형의 뜻을 이을 장학회 출범

나는 지난해 이곳 연해주 우수리스크 마을에 와서 새로운 역사 흔적을 찾아보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투쟁의 재정적 후원자이며 고려인 집단 한인촌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돌봐 주었던 한민족의 대부 최재형 선생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야밤에 두만강을 건넜다. 낯선 땅 동토의 갈대밭 이곳에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유일한 한인지도자였다. 때로는 의병들을 이끌고 총을 직접 들어 일본주 재소를 습격했는가 하면 야학당을 세워서 고려인 마을 자녀들의 교육에도 크게 헌신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쥐가며 민족의 얼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저격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체포됐고, 결국 1920년에 재판도 없이 총살당했다. 그 후 그의



최재형장학회 장학생들과 함께



추석맞이 문화한마당에서 축사하고 있는 김창승 회장



시신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훗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동행했던 우리 기업인 몇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저 불운하고 어린 젊은이들을 돕기로 뜻을 모으고 최재형의 혼백을 이어 장학회를 세우기로 했다.

올해 6월 30일 국회의사당 헌정회관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인재 의원, 이부영 의원 등의 격려 속에서 '최재형장학회'라는 명칭 아래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리하여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조직과 개인들에게 본 장학회의 가입신청서와 최재형 선생에 관한 책들을 들고 돌아다녔다.

지구상에는 7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아말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네들이아말로 이 나라 최초의 이민사가 남긴 불행한 분들이었다.

연해주 동포들에게 희망 주는 작지만 큰 움직임

우수리스크의 가을 하늘은 중추절답게 맑고 상쾌했다. 어린이들의 부채춤은 참으로 귀엽고 흥겨웠다. 내 옆에 앉은 총영사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무대 위에서 춤추는 어머니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말했다. "저들의 지난날의 아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말을 다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 뿐입니까? 저들의 이름도, 고향도 모르고 사는 모습이 어찌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렇게 장학금을 만들어 전달하니 얼마나 저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나의 손을 잡아 주었다.

한 장학생의 아버지는 검게 탄 얼굴로 머리만 숙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이고 있었다. 지금 어려운 살림 속에 몸마저 병들고 아내도 몸져 누워있다고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만이 도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북녘 연해주에 거주하는 내 형제 고려인들의 아픔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러시아 땅에

무려 50만이나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고향 하늘만을 그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아말로 우리의 한 피를 받은 한 형제들이 아니던가.

내년에는 APEC 아세아 정상회의가 바로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따라서 한·러 관계도 급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우리 통역의 젊은 일손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 달에 단돈 1~2만 원은 우리에게는 큰돈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돈이다.

나도 지난날 고학하던 시절 받았던 장학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젊은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처한 형편대로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이것이 따뜻한 사회, 나눔의 삶, 공생 발전의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처럼 고려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나의 동포에 운동으로 승화시켜보고자 한다. 계속하여 온 국민에게 호소하며 다닐 것이다.

우수리스크 시내 최재형 선생의 옛 고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판이 양국 국기와 함께 부착되어 있었다.

"최재형의 집, 이 집은 연해주의 대표적 항일 독립 운동가이며 전 러한족중앙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최재형 선생이 1919년부터 1920년 4월 일본 헌병대에 의해 학살되기 전까지 거주하였던 곳이다." -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

사막화 방지 활동 실천할 ‘창원 이니셔티브’ 채택



지난 10월 10~21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 10차 당사국 총회(UNCCD COP10)가 161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NGO 관계자 등 6천500여 명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사막화 위협으로부터 지구촌을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댄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사막화 해결 체계를 담은 ‘창원 이니셔티브(경남 선언)’가 채택됐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 향후 2년간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위상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회 의장으로 행사를 주도한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 24개국으로부터 산림녹화 기술수출 및 산림협력 관계 구축 요청을 받았다”며, “사막화 해결을 희망하는 국제사회 요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개도국과의 공생발전에 기여해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폐막일 채택된 창원 이니셔티브는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LD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및 실질적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 이니셔티브는 DLDD 저감을 위해서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 국가 간 노력뿐 아니라 지역 간 관·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DLDD 방지 우수사례를 공유하자는 데에도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막화

방지협약 이행에 모범적인 국가나 단체에 주는 ‘생명의 땅(Land for Life)’상도 신설됐다. 특히 협약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이 국내외 9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열린 기업인 포럼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자원 개발, 태양광발전, 토지 재생 등에 기업의 재원과 기술력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윈-윈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업인 포럼을 주도한 문국현 뉴패러다임연구소 대표는 “향후 기업인 포럼은 상설화될 것이며, 내년 리우 회의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라며, “2015년까지 10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렉 나가자 UNCCD 사무총장은 “이번 창원 총회는 역대 10차례의 총회 중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며, “주최국이 단지 총회 개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총회 이후에도 ‘창원 이니셔티브’ 이행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훌륭한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이번 총회를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6일까지 본원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2011 제주 CEO 섬머포럼’에서 렉 나가자 UNCCD 사무총장, 이돈구 산림청장, 문국현 대표가 참석해 UNCCD COP10 및 기업인 포럼 계획을 공유하

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지구환경 재난 극복과 인류의 지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문국현 대표 등은 참가 CEO들을 대상으로 UNCCD COP10 및 기업인 포럼 창립에 관한 지지서명을 받아 이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총회에 당시 참가 CEO를 비롯한 관심 있는 CEO들이 대거 참석해 사막화 방지에 관한 민간 관심과 참여를 약속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지속가능한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경남선언’

복잡하게 얽힌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업들이 역할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의 확대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도의 실시를 통한 각 지역의 환경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민의 생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막화방지 활동을 위한 과학지식, 교육, 투자와 활동의 수익성을 통해 경제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UNCCD 기업인 포럼은 기후변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기업인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의 지혜를 촉구한다.

사막화방지를 위한 노력은 투자수익이 곧바로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정부의 노력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농업, 임업, 토지관리의 지속가능성은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며, 적어도 더 이상의 토지황폐화를 중지시키는 'zero land degradation'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첫 유엔사막화방지 총회 지속가능한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UNCCD SLM Business Forum)이 유엔사막화방지 제10차 총회(UNCCD COP10)와 더불어 개최되면서 총회에 가치를 더했으며,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이라는 테마 아래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LDD)과 싸우는데 있어 기업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포럼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1년 10월 17일부터 18일간 개최됐다. 럭 나가자 UNCCD 사무총장, 이돈구 산림청장,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축사로 세션이 열렸다.

포럼은 현재 사막화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민간부문과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점검했다. 토지, 농림 관련 기관 및 학계의 대표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남한, 북한, 몽골,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UNFCCC와 UNCCD에서 민간부문의 개입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교훈을 통해 영구적인 UNCCD 비즈니스포럼 본부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하여 국가간 더 나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발표와 토론을 거쳐 UNCCD 기업인 포럼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UNFCCC와 UNCCD는 이미 비즈니스 포럼의 개최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시도하고 있으나 UNCCD는 아직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는 인식을 같이한다.
- 토지의 황폐화는 모든 생물의 보고인 토지를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따라서 이 포럼의 목적은 민간부문 내에서 토지, 산림, 토양의 중요성과 DLDD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DLDD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DLDD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력을 할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지속가능한 토지에 관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SLM 기업인 포럼은 토지, 농림, 물, 생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와 글로벌 협력의 장을 열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책입안자들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여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토지, 농림, 물, 생명, 환경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명예의 전당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인들이 각자 스스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반성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SCR)을 실천하게 할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폭넓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 담당자들이 창의적인 기업인의 선진 기술을 적용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할 것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에게는 환경,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의 조언을 얻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민간 부문과 함께 생명의 토지에 생산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현실적인 목표를 매년 세울 것이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기금도 마련할 것이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회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회원들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 SLM 기업인 포럼은 향후 5년까지 1,000명으로 회원을 늘릴 것이다. 정규 회원을 구성하며 모든 회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것이다. 첫 회의는 한국 경남에서 약 100명의 기업인 리더들이 모였다. 이 포럼은 영향력 있고 오래가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 포럼은 사막화 방지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D)와 UNCCD 기술위원회의 설립을 강력히 지원한다.
- 포럼은 환경사업 공모전(Environmental Business Plan Competition)과 사회적 기업의 벤처 창업과 SLM Champions에 기업인들을 적극 참가시킬 것이다.
- 포럼은 각 정부부처에게 SLM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인센티브의 개발을 촉구한다.
- SLM 기업인 포럼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UN사무소는 독일 본에 위치할 것이다.
- 제2차 비즈니스 포럼은 2012년 리오+20 정상회의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제3차 비즈니스 포럼은 2013년 UNCCD COP11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1년 10월 18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UNCCD 기업인 포럼 일동

진심을 전하는 스피치로 신뢰 얻는 CEO가 되자

얼마 전 말더듬이 왕을 소재로 한 영화 <킹스 스피치>가 상영된 적이 있었다. 이 영화가 들려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시대가 바뀌면서 매체도 변했다. 이른바 미디어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미 라디오의 일방향적 속성은 인터넷의 쌍방향과 만나고 SNS와 연결되어 어느 쪽으로든 정보가 흘러가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제 말더듬이 같은 외형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그 말이 갖는 진심이다. 우리는 과연 지금 그 진심을 얼마만큼 담아 전달하고 있을까?

본원과 봄온커뮤니케이션은 CEO의 브랜드와 품격을 올릴 수 있는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2010년 9월부터 시작해 현재 7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수료한 6기 과정에는 이부근 농협중앙회 상무, 이태재 농협중앙회 상무, 이문희 농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재근 국민은행 부행장, 최성욱 (주)에프엠씨코리아 대표이사, 권순필 현대엠코 전무이사, 손정희 하나로애드컴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10월 17일 개강한 7기 과정에는 농협중앙회 윤한철 상무, 이재식 국장, 장종환 팀장, 서문용채 (주)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이원태 대한통운 대표이사, 정난희 조이프린테크 대표이사, 권성일 대우인쇄교양 과장, 이윤희 IBK캐피탈 사장, 유만기 에듀코 이사, 김성희 CEO리더십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강의 실을 가득 채워주었다.

첫 수업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성연미 대표의 발성발음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2주차 수업에서는 사전 스피치 실습으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스피치 녹화와 모니터링으로 진행됐다. 향후 진행될 수업에서는 원종배 전 K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교양 스피치에 대한 내용의 이론수업과 "CEO의 삶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방송녹화를 통한 실습수업, 유머스피치, 공식석상의 위기대처와 시사스피치, 감동스피치 등으로 진행된다.

언어는 습관이다.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언어와 거짓 없이 겸손한 언어, 배려의 언어, 진심을 전하는 스피치를 익혀 타인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CEO가 되시길 바란다. 2012년에도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민선**



섬김 리더십의 크리스천 리더 양육과정 CLA 3기 개강

이 시대에 '섬김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3기(CLA, Christian Leaders Academy)'가 10월 25일 문을 열고 16주 동안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인간개발연구원과 CBS가 공동으로 개설한 CLA과정은 1,2기 동안 크리스천 리더 120여 명을 배출한데 이어 3기째로 접어들면서 각계로부터 큰 호응과 공감을 넓혀가고 있다.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정계, 재계, 학계, 법조계, 기업인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CLA 3기 개강 감사예배에서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목사)는 '천국의 사고방식'의 설교말씀을 통해 "한국교회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부동산과 예배당 짓는 데에만 급급하여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진정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선 무슨 일이든 남 탓만 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CLA를 통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진정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 교육이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리더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들은 개강식과 더불어 앞으로 16주 동안 국내 최고의 명품 강의를 수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길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숙자와 사회극빈층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고 장례를 지내주는 다일천사병원,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밥퍼운동본부 등을 직접 찾아간다. 배움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나눔과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섬김의 도리'를 몸소 체험할 예정이다. **김재민**



감성을 절절 끓게 하는 곳, 고창의 가을이 깊어간다! 전북 고창

여행객의 감성을 절절 끓게 하는 전북 고창의 가을. 그곳에 가면 사계절 각기 다른 정취를 자아내는 선운사를 만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소박한 멋을 자아내는 메밀꽃밭과 선사시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고인돌공원, 조상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고창읍성 등을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문화와 온아한 전통이 가을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고창으로 떠나보자. <편집자 주>



자연의 경이로운 선물, 예술로 승화

절절 끓는다. 단풍으로 물든 고창, 덕분에 이 가을이 화끈 달아오른다. 아름다운 절경과 서정적인 문학이 머무는 고창. 고창하면 미당 서정주와 동리 신채효가 떠오르고, 고창읍성과 선운사,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여기에 보리밭과 메밀꽃밭이 떠오른다.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그 매력이 넘쳐나는 고창, 자연의 경이로운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영광을 담아 문학으로 표현한 이들도 많다. 고창이 그러하니 아름다운 문인을 배출하는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그중 만해, 소월, 지용 등과 함께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당 서정주 시인. 우리나라의 문학적 가치를 드높였던 그는 고창의 자랑거리다. 그래서 마련된 곳이 미당시문학관이다. 선운사 가까이 단아하게 자리 잡은 이곳은 마음을 정화하기에 그만이다. 감성을 충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꼭 한 번 둘러볼 것을 권한다.

서정주도 그러하지만 신채효 역시 고창이 자랑하는 인물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광대 소리의 가사를 정리하고 통일하여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적벽가 등 여섯 마당으로 체계화하고, 판소리 사설문학을 집대성한 동리 신채효는 춘향가, 박타령, 토끼타령, 심청전 등을 창곡화했으며, 소리패를 문하에 두고 많은 명창을 길

- 1 선운산
- 2 메밀꽃
- 3 고인돌
- 4 고창읍성



러냈다. 이른바 판소리의 기틀을 닦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창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 '동리국악당'을 설립했다. 이곳은 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판소리, 영창자, 고수 등 전국 의 역량 있는 소리꾼들을 발굴하기 위한 '동리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길이 좋은 선운사와 도솔암

선운사는 사색 여행지다. 길이 좋기 때문이다. 선운사에서 그 누구라도 맑아진 다.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다. 선운산 아래에 다소곳이 놓여있는 선운사. 혹자는 '선운사의 가장 큰 매력은 선운사 대웅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선운사를 시작으로 도솔암 마애불까지 오르게 되니 말이다. 선운사 주변에는 진흥왕이 수도했다는 진흥굴과 검단선사에게 쫓긴 이무기가 바위를 뚫고 나갔다는 용문굴, 전망이 뛰어난 만월대가 있다. 특히 용문굴은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도솔암까지는 40~50분을 걸어야 한다. 오르는 길, 촉촉한 가을향기가 머리를 맑게 한다. 도솔암 마애불까지는 아름다운 숲길이 이어진다. 칠송대라는 바위 표면에 새겨진 도솔암 마애불은 차분히 앉아 있는 부처의 모습으로, 백제 위덕왕이 검단선사에게 부탁해 암벽에 불상을 조각하고 암벽 꼭대기에 동불암이라는 공중누각을 짓게 했다고 전해진다. 오르는 동안 천연 자연에 감동하게 될 것이나 아직 이른다.

광활한 들판에 펼쳐진 고창의 메밀꽃잔치!

가을이면 끝없이 펼쳐지는 메밀꽃밭. 매년 가을이면 전북 고창군과 고창메밀꽃잔치위원회가 공음면 선동리 학원농장 일대 100만㎡에서 메밀꽃잔치를 연다. 새하얀 꽃이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많은 연인들이 선호하는 사진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광활한 들판에 펼쳐진 메밀꽃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4~5월, 청보리축제가 열렸던 바로 그곳에 메밀을 심어 가을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여 마치 흰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장관이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깊어지면 메밀꽃도 흐드러지게 피어 절정을 이룬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멋진 경관에 보는 이들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사진작가가 된다.

9월 중 펼쳐지는 메밀축제기간에는 메밀국수를 비롯한 전통음식을 맛보는 시골장터, 전통·민속놀이 행사장, 경관농업 사진 전시, 민속공예품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고창 학원농장 메밀꽃밭은 영화 <웰컴투 동막골>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가족과 친구, 연인이 찾는 가을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이 선택한 고창, 고인돌유적지와 고창읍성

고인돌의 고장인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유적지는 특히 북방식, 남방식, 절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접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이기도 하다.

고창에는 국내 고인돌의 50% 이상이 모여 있다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현재 2,000기의 고인돌이 있다. 특히 고창 읍내에서 북서쪽으로 10km 남짓한 지점에 자리한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 일대에는 고인돌이 몰려 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이 많은 이곳은 고인돌이 너무 흔해서 예전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촌로들의 휴식처로 쓰였다고 한다. 어떤 고인돌은 칠성바위, 거북바위, 마고 할머니 바위로 불리며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복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연간 수십만 명의 세계 관광객이 찾는 영국 스톤헨지나 아일랜드 더블린의 뉴그랜지 거석문화 유적지처럼 고인돌 공원을 조성해 놓았으며, 매년 10월 '세계 고인돌 축제'를 열고 있다.

한편 영화 <왕의 남자> 촬영장소로 이용되었던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에 왜침을 막기 위해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일명 모양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은 나주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되어 호남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방관련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이곳은 건강을 기원하는 답성놀이터로 유명하다. 답성놀이는 여인들이 작은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도는 것을 말한다. 가을의 정취가 빼어난 곳이지만 밤이면 더욱 아름답다. **☞**

TIP

고창의 유명 볼거리와 먹을거리

● **질마재**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진마마을. 이곳에 질마재가 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창마을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질마는 소나말의 안정을 뜻하는 '길마'의 사투리. 야트막한 질마재의 길이는 1km. 걷기 좋은 길을 대표하기도 한다. 질마재는 진마마을 사람들이 해산물이나 소금등짐을 지고 넘던 고개이다.

● **복분자주** : 고창의 명물 복분자주. 부녀자들이 깊은 산중에서 자생한 복분자 열매를 6-9월께 채취하여 만든 술이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옹기그릇에 밀봉하여 2-3년을 숙성시켜야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복분자 열매를 따고 술을 빚는 작업을 할 때는 금남의 구역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부녀자들만의 정성으로 만들어야 남정네들에게 보양이 된다는 말이 전해진다.

● **풍천장어** : 선운산 어귀의 인천강은 예부터 '큰 바람이 서해 바닷물을 몰고 들어온다'하여 풍천(風川)이라 불렸고, 이곳에서 잡은 뱀장어를 풍천장어라 했다.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기 전, 인천강에서 몸을 단련할 때 잡은 장어는 쫄깃하고 담백해 그 맛이 일품이다.

찾아가는 길

- 서울→서해안고속도로→선운산IC→고창
- 서울→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서울간고속도로→논산→호남고속도로→정읍IC→고창

문의 : 미당시문학관(063-564-1321) / 동리국악당(063-560-2542) / 청보리밭축제(063-562-9895)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회원 소식]

■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월 12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국내 산업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주도한 공로로 '제30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산경제학상은 정약용 선생의 경세제민(經世濟民)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기 위해 1982년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상이다. 한편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 **[사밖은 청소년(이)시장 임정희]**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청소년인성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음악회 '스크린 콘서트'를 개최했다.

■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이시형 한국산림치유포럼 회장**이 **힐리언스 선미**를 주최한 **장은**은 지난 10월 19일, 숲의 치유기능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을 받았다.



■ **한일시멘트(사장 허기회)**는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1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시상식에서 '포틀랜드 시멘트' 및 '드라이모르타르' 부문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한국사용품질지수는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제품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및 제품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종합지표이다. 한일시멘트는 특히 이 분야에서 레미탈이라는 통합브랜드로 100여 종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있으며, 연간 810만 톤의 생산능력과 함께 시멘트를 비롯해 레미콘, 레미탈로 이어지는 통합자재 공급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는 2008년부터 공항 IT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 수준의 표준(ITIL)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수



립 운영해 온 결과 아시아 최초로 공항 IT서비스 분야 ISO/IEC 20000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에는 공항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건립비를 지원한 '인천하늘고등학교'가 교과동, 기숙사, 체육관 등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하늘고는 자율형 사립고로서 학년당 8개씩 총 24개 학급 규모로 급당 인원은 25명 선이다. 하늘고의 교과과정은 일반 교육과정 외에 대학 교양과정까지 도입해 국내 석학 교수들이 교육과정 중 일부 강의를 맡는 고급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1인 1에 1체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 전 국민의 문화 사랑과 아름다운 미술품 갖기 생활화에 앞장 서고 있는 **(주)**



리사이트(대표이사 이종원)는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10월 28일,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 3층에 '갤러리 G-Arche'를 그랜드 오픈하고 오픈기념식을 가졌다.

■ 고급 도자문화로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광주요(회장 조태권)**은 세계적인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콘셉트로 한 도자 컬렉션 'YUNA'를 제작하고 지난 10월 28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이벤트홀에서 김연아 선수가 직접 방문한 가운데, 론칭쇼를 개최했다. 이번 컬렉션은 11월 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문학의 집(서울(이)시장 김후람)**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1일 '2011 서울문학인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예장동 남산자락에 위치한 문학의집 서울은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문학 관련 행사를 펼쳐왔다. 작고 문인을 재조명



하는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현역 중견 문인을 초빙해 문학의 뿌리와 작품세계를 들려주는 '수요문학광장'을 매달 열어 120여 회 이어왔다. 이밖에도 자연사랑문학제, 문학청소년축제, 시낭송경연대회 등 다양한 연간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가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우리시 우리노래 2011 가곡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Leading Total Solutions in Life Sciences"를 추구하는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회장 황을문)**와 나노엔텍은 생명공학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지난 9월 28일에 체결했다. 한편 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11월 4일 판교신사옥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 **한국웃음연구소(소장 이요셉)**는 오는 11월 5일 연구소 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내 안의 잠든 리듬을 깨워라'라는 주제로 'Let`s go 스마일댄스'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칭댄스, 온몸 리듬타기, 스마일댄스 동작배우기, 스트레스를 날리는 굿댄스, 함께 나누는 리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한국아쿠르트(대표이사 양기락)**가 출시한 신제품 '꼬꼬면'의 인기가 조금도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회사 측은 '꼬꼬면'의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21시간 가동 및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해나간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국행정학계의 거성인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는 회수를 맞이하여 저서 <정부에는 행정학이 없다>를 출판하고 10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상담역**은 16년의 이력을 가진 삼성그룹 최장수 CEO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마음을 얻어야 세상을 얻는다>를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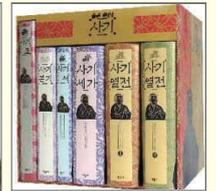
저서에는 가장 치열한 경쟁으로 잘 알려진 삼성그룹 내에서 살아남은 저자만의 생존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온라인 자서전 <리더를 읽다>를 출간하고 온라인 서점 리디북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전자책은 유 회장의 동아제약 입사 시절부터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김원중 건양대 교수**는 <사기 표(表)>와 <사기 서(書)>를 10월 4일 출간했다. 이로써 지난해 나온 <사기 본기>, <사기세가>를 포함해 총 4000쪽이 넘는 <사기> 130편 전편 번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가 국내 최초로 완역된 것으로 한 개인이 <사기>를 완역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김 교수가 유일하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은 '오색선식'을 개발하여 롯데홈쇼핑에 단골 론칭했다. '오색선식'은 색깔음식 건강법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컬러푸드와 전통 개념인 오방색의 콘셉트와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대로 '조반식죽'의 원칙에 따라 제작된 선식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양병만)**은 '스마트 시대의 HR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1 송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HR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해법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시: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0분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 참가비: 1인 18만 원(2인 이상 참가기업 1인 15만 원)/VAT별도
- 문의: 세미나 사무국 TEL 02-890-0840, 0815

[신규회원]

■ 김은미 (주)씨오스위트 대표이사(법인회원)

씨오스위트(CEO SUITE)는 혁신적인 사무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아시아 태평양 7개국 8개 도시 12개 지점에 총 600여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학금 후원, 청소년 멘토링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5층
- 홈페이지: <http://www.ceosuite.co.kr>

■ 오미소 에뽀꼬 갤러리아트딜러(개인회원)

‘미술과 음악의 창조적인 만남’을 지향하고 있는 갤러리 에뽀꼬는 시대의 조류를 새로운 형태로 만 들고자 동시대의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 호흡하며 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재동 38-1
- 홈페이지: <http://www.galleryepoque>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우덕성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전 썬데일러 사장**의 장녀 주현양의 결혼식이 10월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박이락 (주)성한트렌스텍 대표이사**의 장녀 송희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일시: 2011년 11월 5일(토) 오후 5시
- 장소: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Tel. 02-789-5700)

[이전하였습니다]

■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은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새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7-111 3층
- 전화: 전과 동일 (02-598-5226)
- 팩스: 전과 동일 (02-354-5233)

■ **이규태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은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새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3-2 성보역삼빌딩 4층
- 전화: 전과 동일 (02-2183-0860)

■ **김영후 세계재난구회 사무총장**은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새주소: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86-21 호전빌딩 6층
- 전화: 전과 동일 (02-2183-0860)

■ **황을문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회장**은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 KOREA BIO PARK A동 4층
- 전화: 031-628-3045
- 팩스: 031-628-3011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 1일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 2일
(주)비츠로테크	장순상 회장	11월 8일
(주)덕성	이해성 사장	11월 10일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11월 15일
(주)주택문화사	이 심 회장	11월 18일
(주)나노인터페이스테크놀로지	송재문 회장	11월 19일
파르나호텔	김동헌 대표이사	11월 22일
로터스힐	최만식 회장	11월 26일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1일
원근건설	한의섭 회장	12월 7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천일식품(주)	천석규 대표이사	12월 14일
신명인터내셔널(주)	최해규 회장	12월 15일
(주)리-사이트	이중원 대표이사	12월 16일
(주)성도GL	김상래 사장	12월 17일
예성화랑	한영희 대표	12월 17일
원풍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 20일

[소모임소식]

■ **MS클럽(회장 전순표 / 총무 차승일)**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수료생들과 함께 스피치에 대한 배움과 좋은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자 지난 10월 14일(금) 만복림에서 MS클럽 운영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수 회장 및 임원진 12명이 참석해 향후 수료생 동기모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 9월 모임은 골프모임으로 대신하여 한성CC에서 즐겁게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월 모임은 31일 태평양 일식 별관에서 만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YCF(회장 황광석 / 총무 안정옥)** 11월 모임은 (주)성도GL(사장 김상래)을 방문하여 YCF 초대 회장인 김상래 사장의 기업과 경영, 그리고 YCF 창립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일시: 2011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주)성도GL
- 문의: 민선아 차장(Tel. 02-445-1948)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회장 김창승 / 총무 이계옥) 11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는다. 글쓰기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주제: 손광성의 수필쓰기
- 일시: 2011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문학의 집·서울 산림문화관 2층홀
- 문의: 정용달 팀장(Tel. 02-445-1949)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 11월 모임은 인간개발연구원 직원을 초대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일시: 2011년 11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금창고(삼성동, Tel. 02-561-8627)
- 참석통보: 총무 홍승국(H.P. 010-5305-3378)

■ **골프모임 인경회(회장 이웅국 / 총무 이종원)** 11월 정기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회원 모두 참석하시어 골프를 통한 건강과 유익한 정보 및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 일시: 2011년 11월 18일(금) 12시 35분 티오프

- 장소: 한양 C.C
- 대상: 인경회 정회원 및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연구원 소식]

■ **피터 드러커의 통찰력이 집대성된 DMP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피터 드러커의 경영혁신 왕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DMP 온라인 과정'이 10월 1일(토) 개강했다. 12월 16일(금)까지 총 11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바쁜 경영진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현업에서 이론과 실재를 활용하여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 문의: 장소영 실장(Tel. 070-8670-8435)

■ **장만기 회장, 한러대화포럼 참석차 러시아 방문**

본원 장만기 회장(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은 고려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의 주관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월 31일(월)부터 11월 3일(목)까지 열리는 제2회 한러대화포럼에 참석하여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한러협력 방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회원사 제품 협찬**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참석자를 위하여 김석문 신일팜글라스 대표이사는 '도르만스 커피'를, 홍승국 에버그린MST 대표이사는 '손목시계'를 매주 선물로 협찬해주고 있어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 협찬해주시는 김석문 대표, 홍승국 대표께 감사드리며, 본원에서는 협찬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고 있다. 자사 제품 소개에 관심 있으신 회원은 본원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처: 경영자교육팀 민선아 차장(Tel. 02-445-1948)



2011년 전국으로 확산된 아카데미 정기 프로그램 전 국민의 평생학습시대 선도하는 교육으로 평가

〈교육컨설팅소식〉

■ 평생학습시대 선도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



십사리 식지 않던 무더위도 다가온 가을로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으나 전국 지방자치아카데미의 열기는 하반기 들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와 송파구를 비롯하여 충청권의 제천과 부여, 영남권의 군위와 청도, 호남권의 무안과 고흥 등 약 50여 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다수의 지자체와 활발한 교육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6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하반기 아카데미의 시작으로 오한진 관동대 제일병원 교수를 모시고 “오한진 교수의 노화방지 비법”이란 주제로 서문을 열었다. 9월 8일 거제시에서는 왕종근 아나운서를 모시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잔품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2011년도 아카데미 일정을 시작했고, 같은 날 충북 제천시에서는 한비아 씨를 모시고 열정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9월 26일 전남 완도에서는 뮤지컬 “마음을 요리하는 요리사”의 공연을 통해 공연문화 활성화의 씨앗을 뿌렸고, 10월 27일 무안에서는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한국 근대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리더십, 자기계발, 조직화합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정기교육

기업 정기교육은 리더십을 기본으로 자기계발, 조직화합을 중점으로 하는 가운데, 대응계약 경남지역본부 특강에 구건서 법무법인B&K 대표, 김창욱 퍼포먼스 트레이닝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으며, 리바트 직원특강에 방송인 김종석 씨가, 크루셀텍 월례특강에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가 로마에서 배우는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다.



10월 7일 진행된 성도이엔지 전직원워크샵에는 전옥표 위닝경영연구소장이 특강에 나서 자기계발과 직원화합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10월 20-21일 양평에서 진행된 유한대학 교수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에는 전옥표 소장,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서명식 한국사학진흥재단 팀장, 이승근 전국대학협의회 실장 등이 참여해 대학교육의 환경변화와 혁신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대학에서 각각 열렸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만기 인제대 교수는 인생의 좌절과 성공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특히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정호승 시인 등은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21세기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상에 대해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경북도립대학과 함께하는 '솔개뜰 아카데미'에 공병호 박사와 홍수환 대표가 참여해 미래 글로벌인재의 조건과 도전과 극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JDC, 가족친화 경영 앞장, 신입사원 가족초청 행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는 지난 10월 14일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신입사원 가족초청 행사를 가졌다. 올해 JDC에 입사한 신입사원 11명의 부모 등 가족 20여명을 초청한 이날 행사는 JDC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까지 키워준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JDC를 방문한 가족들은 변정일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자녀들이 일할 사무공간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가족들은 JDC 홍보관 및 JDC가 추진 중인 핵심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달 개교한 NLCS 제주와 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 미항의 새연교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김천시, 2011년 도시대상 '활력도시부문 대상'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2011년 도시대상'에서 활력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구 15만 소도시로는 유일하게 제8회 전국체전을 개최해 시의 위상을 높인

김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40여 회의 국내외 대회 개최로 연인원 18만7천여 명이 시설을 활용, 106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번 수상은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포츠 시설을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 정선군, 정선여행 시즌브랜드 '보고싶다 정선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정선여행 시즌브랜드를 '보고싶다 정선아'로 정했다. 군은 '정선이를 찾아라' 행사를 통해 찾은 정선이 21명 가운데 김정선(22, 세종대양을 홍보모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수도권 주민이 자연스럽게 정선을 기억하고 방문하도록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객을 찾아 선물 등을 주는 행사로 기획됐다. 정선군은 앞으로도 군을 홍보할 재능 있는 '정선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광고효율이 뛰어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함양군, 제1회 마을숲 이야기 경진대회 '으뜸상' 수상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제1회 마을숲 이야기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대로마을 숲이 최고상인 으뜸상을 수상했다. 대로마을숲은 이야기 구성도, 희귀성, 활용도, 숲사랑 고취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상인 으뜸상에 선정됐다. 이 숲은 문헌상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숲을 이루고 있는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수령은 대부분 100년 이상으로 6.25전쟁 당시 소실된 느티나무는 그 수령이 1000년이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완도군, 여성소비자 초청 '맞춤형 그린투어' 큰 호응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체험 및 그린투어리즘 행사'가 생산농가와의 특산물 직거래 등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군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도시의 여성소비자들을 초청해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현장 체험을 통해 우수한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체험객들은 친환경 농업단지를 방문하고 바다체험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한편 군은 체험 대표단을 완도 명예면장으로 위촉해 고정고객으로 확보하고 완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회원 가입 안내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간행물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 발송 정기간행물 및 도서 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경영자교육팀 Tel. 02-445-1948



제10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문화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주)성도GL/(주)성도술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이 후원하는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10월 8일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 내에 위치한 미술관 '공간 퍼플'에서 열렸다.

연 2회 공연을 펼치고 있는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10회째 공연으로 자연 속에 마련된 '공간 퍼플' 야외 공연마당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왔다.

이번 연주회는 사회자 김순영 아나운서의 맛깔스러운 진행으로 '작곡가의 심오한 음악세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특출함을 지닌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서현석 교수의 지휘로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한 "금빛소리... 윈드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타악인으로는 최초로 펜데레츠키 국제콩쿨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마림바 연주자인 심선민의 맑고 청아한 연주와 서울대 성악과 교수이자 스위스 가이야르 국제콩쿨 호세카레라스 최고 테너상을 수상한 테너 박현재 교수의 영혼을 흔드는 듯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공연이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을밤의 꿈결 같은 시간을 선물한 공연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연주회가 개최된 '공간 퍼플'은 성도GL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국내외 정상급의 아티스트 작품들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격조 있는 전시회를 진행하며, 예술의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현재 '공간 퍼플'에서는 2011 하반기 기획 전시로 '단색조의 회화 I'전을 내년 3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전시하고 있다. 단색조 회화는 일체의 형상과 이미지를 화면에서 제거하고 단일한 색조를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함으로써 이를 평면이라는 구조적 형식과 동양적 정신성이라는 문제를 반복된 행위를 통해 나타낸 장르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현대미술에 있어서의 현대성이 단색조 작품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됐으며, 정창섭, 박서보, 정상화, 이승조, 서승원, 김태호 등 6명의 작가를 선정해 전시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은 이 전시를 통해 단색조 회화가 화면과 색채를 다루는 일종의 기법과 방식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세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정신적 비전의 제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전시라고 밝혔다.

성도GL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업 예술지원 프로그램인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알리는 과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RM**



3무 경영

하지해 / 위즈덤하우스 / 288쪽
 풍선껌에서 시작해 세계 순위 5위로 성장한
 롯데그룹의 성장 스토리!

이 책은 롯데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을 다른 책으로, 롯데그룹의 성장사를 속속들이 담았다. 전통적인 내수기업으로 인식되던 롯데가 '아시아 글로벌 TOP 10'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는 요즘, 롯데를 지탱해준 롯데만의 독특한 성장 동력인 '3無 경영'을 제시한다. '3無 경영'이란, 성장의 한계가 없고, 도전에 국경을 두지 않으며, 파벌·지역색이 없다는 것이다. "최고의 결과는 최고의 과정에서 나온다"는 교과서적인 믿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우직하게 나아간 롯데의 역사를 살펴보고, 롯데의 성장엔진을 많은 기업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새로운 롤 모델로 제시한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박경철 / 리더스북 / 399쪽
 시골의사 박경철이 제안하는 혁명가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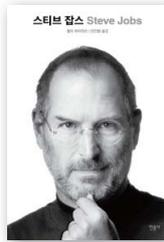
시골의사 박경철이 이 시대의 청춘에게 던지는 자기혁명의 메시지. 청년은 세상을 어떻게 읽고 소통해야 하는지, 자기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치열했던 고뇌와 시행착오의 기록을 담고 있다.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비판가이며 청년의 멘토로 떠오른 저자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나눈 소통과 교감의 기록을 엮었다. 자아찾기, 사회인식, 시간활용, 책임기,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제시한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정희일 / 다산라이프 / 270쪽
 20대, 생존 독서를 시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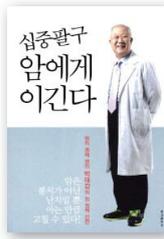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를 낸 이지성이 그의 멘티 정희일과 실제로 진행했던 독서 멘토링을 바탕으로 '생존독서'에 대해 들려주는 책이다. 책이라면 라면반침으로만 썼던 홍대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한 '1년 365권 자기계발 독서' 미션을 단계별로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구성했다. 삶을 바꾸는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실천법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며, 독서가 주는 변화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 안진환역 / 민음사 / 900쪽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육성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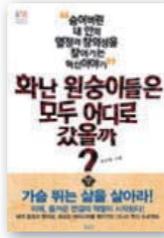
CNN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타임> 전 편집장인 월터 아이작슨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애플의 공동 창업주이자 전 CEO 스티브 잡스의 전 생애와 우리의 디지털 삶을 바꾼 혁신의 핵심 원천을 최초로 밝힌다. 아이작슨은 2009년부터 2년 간 잡스와 함께 어린 시절 집을 방문하거나 산책을 하며 그를 40여 차례 인터뷰했고, 그의 친구, 가족, 동료뿐만 아니라 반감을 가진 인물이나 경쟁자까지 포함하여 100여 명의 인물을 인터뷰했다.



십중팔구 암에게 이긴다

박재갑 / 동아일보사 / 262쪽
 당신은 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명의 박재갑의 생활 속 암 예방 지침서이다. 이 책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쉽고 현실적이며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암 예방법을 제시한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간염 예방백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 정기검진을 통해 암 발생 여부를 감시, 식생활에 주의하는 등 암 예방수칙 7가지를 소개한다. 또 암 고위험군과 늦기 전에 병원에 달려가야 할 주요 암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저자는 암은 죽을병이 아니라 극복이 가능한 병임을 이야기하며, 금연과 백신접종, 정기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 상식만 잘 지켜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송인혁 / 아이앤유 / 256쪽
 인류 역사상 아이디어, 창의성, 열정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은 없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통찰과 연결의 놀라운 힘을 통해 만나는 창의성과 열정의 비밀들을 밝힌다. 이 책은 기계의 부속물처럼 창의성과 열정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명쾌한 통찰력과 실증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은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1년간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수동적인 조직생활을 하며 개인적인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이 '내적 동기'에 의한 '연결'임을 증명하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통찰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팔리아치'는 빵집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이탈리아 오페라대회 우승을 통해 슈퍼스타로 화려하게 등장한 최고의 작곡가 P.마스카니의 우승작품이다. 1890년 첫 공연부터 40회의 커튼콜을 이끌어낸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된다. 이번 작품은 세계적인 오페라작품을 선보이는 노블아트오페라단이 제작했다.

- 일정: 11월 10일(목) ~ 11월 13일(일)까지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OSCOW PHILHARMONIC ORCHESTRA)의 이번 내한공연은 거장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유리 시모노프'와 티보바르가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젊은 거장 '요제프 렌드바이'가 뭉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한다. 러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감동적인 선율에 빠져보자.

- 일정: 11월 13일(일) ~ 11월 13일(일)까지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02-3463-2466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 공연'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1984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의 첫 내한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베를린 필하모닉은 이후 무려 21년 만에 성사된 2005년 서울 공연에서 3년에 한 번씩 한국 공연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새로운 상임지휘자이자 21세기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이먼 래틀과 함께였다. 2011년 11월, '3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다. 이번 무대에서는 교향곡의 역사에서 베토벤 이후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자 후기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인 말러와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 일정: 11월 15일(화) ~ 11월 15일(화)까지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02-6303-7700



음악회 'Romantic Concert 로맨틱 콘서트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2010년 '호두까기 인형'에 이어 2011년에는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 중 하나인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차이콥스키가 남긴 3개의 발레 음악 중 최초의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발레로 꼽힌다.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된 공주와 인간인 왕자의 사랑 이야기로, 달빛이 쏟아지는 호숫가에서 백조로 분한 튀튀(tutu)를 입은 발레리나들의 아름다운 군무가 유명하다.

- 일정: 12월 4일(일) ~ 12월 4일(일)까지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02-399-1789



무용 '서울시무용단 중견작가전 NOW, MOVEMENT'

엄선된 중견안무가 3인의 작품으로 한 무대에서 3인3색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한국무용계를 대표하는 안무가들이 서울시무용단원들과 함께 펼치는 안무가전으로 시대의 흐름과 무용의 트렌드, 한국무용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실력 있는 3인의 안무가가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이번 작품은 한국 창작 무용의 최근 경향과 미래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정: 12월 15일(목) ~ 12월 16일(금)까지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 문의: 서울시무용단 02-399-1766



재즈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지난 10년간 전석 매진!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 잡은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11번째 공연이다. 시적인 피아노, 농익은 따스한 색소폰, 수준 높은 연주와 징글벨, 북치는 작은 소년, 오 타누밤, 고요한밤 거룩한 밤 등 세계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겨울나무, 구두 발자국 등 한국의 겨울동요들을 재즈 선율에 담아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게 기획된 공연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정: 12월 24일(토) ~ 12월 25일(일)까지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 문의: 02-399-1114-6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소통아카데미 1기 '소통과 행복' 주제로 수료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소통아카데미 1기'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수료식을 가졌다. 일반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9월 21일 개강해 10월 19일까지 매주 1회 총 5회 강좌로 진행됐다.

소통아카데미는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기본 인성을 함양해 사회통합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사회에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원이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의 후원으로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문제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송석구 위원장은 개강 인사말을 통해 "원활한 소통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 바탕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참석자 모두가 우리사회의 소통리더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장만기 본원 회장도 인사말에서 "사회갈등 해결비용으로 한해 수백 조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소통기법,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대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조용헌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의 개강강연에 이어 강지원 변호사, 김후란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시인),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창옥 퍼포먼스 트레이닝연구소 대표 등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강연을 통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시민들 스스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19일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200명의 수강생 중 121명이 전 과정에 출석해 사회통합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소통아카데미 2기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방송대 스튜디오에서 200명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기에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김효석 김효석아카데미 원장,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신달자 작가(숙명여대 객원교수) 등이 강연에 나서 소통의 기법과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통아카데미 1기 강좌를 요약 발췌해서 소개한다.



한국 명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1회차 / 9월 21일(수) 조용헌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한국사회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북과 동서의 지역적인 갈등과 빈자와 부자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남사람들은 이북사람들을 천대했다. 특히 이북사람들은 고

위관직에 오른 기록이 전무하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이북에서 반란이 많았다. 함경도에는 여진족 등 이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고, 중국과 교류의 중심이었던 평양도에서는 많은 물류 및 정보가 풍부하여 힘이 있었기에 이남에서 일어났던 반란에 비해 이북에서의 반란은 보다 실질적, 군사적이었다. 이런 500년간의 갈등은 결국 6.25의 씨앗이 되었다.

영남권의 안동은 양반의 동네라 부린다. 그러나 안동 출신 고관대작은 없다. 영남권에서는 경상도라는 지역명을 만든 경주와 상주를 제외하면 농지도 많지 않을뿐더러 영조가 왕위를 잇자 정치권을 잡은 노론은 영남 출신의 남인을 탄압하여 높은 관직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노론이 주로 거주했던 강북에 비해 남인이 거주했던 강남에 강북에 비하여 빈곤했다. 남주북병이라는 말은 넉넉한 노론은 쌀로 떡을 빚어먹었으나 빈곤한 남인은 부족한 쌀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빚어 마신 것을 뜻한다.

조선왕조 500년 중 300년을 주도한 노론은 귀경천향지풍(貴京賤鄕之風)을 조장했다. 벼슬에서 은퇴한 이는 대개 지방으로 내려갔으나 노론은 서울권에 눌러 앉으며 서울을 귀하게 여기고 촌을 천하게 여겼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오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명한 경주 최부자집, 영화 <가문의 영광>의 배경이 된 여수의 봉서당 김씨 일가 등의 명문가는 6.25나 여순사건 등 수차례 난을 겪어왔지만 아직도 명문가로 남아있다. 이 명문가들의 공통점

은 큰 벼슬에 욕심내지 않고 가진 만큼 주위에 많이 베풀었다는 점이다.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 남북, 동서 간의 갈등에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줄부가 많은데, 이들은 어린 시절의 고생으로부터 부자가 되어 베풀기보다는 자신이 누려야할 보상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이런 오랜 갈등은 갈등 집단 간의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통의 첫 단추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한국인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성숙

2회차 / 9월 28일(수) 강지원 변호사



사람은 서로의 욕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서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조절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불통

인 경우이다. 왜 이런 불통 현상이 생겨날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욕구에 대한 집착을 '욕망'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욕망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배려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된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집착과 상대에 대한 지배적 욕구에 대한 집착이 생겨날까.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욕망적 사고가 커지고, 이 상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욕망적 사고가 작아진다.

우리는 주변에서 유독 욕망적 사고가 큰 사람, 예컨대 돈 욕심, 명예 욕심, 인기욕심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트라우마는 2가지 기능이 있다. 순기능 면에서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해서 성취 욕구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반면에 역기능 면에서는 상처에 굴복해 병적 상처가 되고, 우울감, 열패감, 피해의식에 빠지고, 분노와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욕망을 내려

놓아야 한다. 욕망적 사고를 무욕적(無欲的) 사고로 바꾸어야 한다. 대화의 요체는 경청이다. 경청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가치를 부여하며 듣는 것이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한다.

나눔을 위한 봉사와 기부도 이런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회가 바로 공존과 공생, 화합과 통합의 사회다. 행복은 밖으로 보이는 돈의 크기, 권력의 크기, 명성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가치적 성취를 뛰어넘어 정신적 성공, 심리적 성숙을 이루어야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자존감을 넉넉하게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숲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문학의 힘

3회차 / 10월 5일(수) 김후란 문학의집 서울 이사장(시인)



물질 만능시대에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초월의 세계가 필요하고, 그 길의 하나로 문학과 의 만남이 있다. 마음에 드는 시나 소설을 만났을 때는 자기 영혼과 비슷한 일정의

친화감의 생기고 지은이와의 교감이 이루어져 절로 심취하게 된다. 하나의 문학작품은 언어로 지어진 집이다. 문자의 힘으로 꿈틀대는 그 집에 들어서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나 혼자만의 경험세계가 아닌 확대된 인생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이 나와 남과의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아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침을 준다. 인생교과서라고 할 좋은 문학작품은 사회학, 인문학, 심리학 등 모든 지식을 통합한 하나의 큰 세계로 비유할 수 있다.

좋은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명작으로 살아남는다. 그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그 작품들을 아껴줄 때 '문학은 영원하다'라는 말도 쓸 수 있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는 말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이웃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뜻이다. 평소에 덕을 베풀며 함께 정을 나눈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랑의 굴레가 그를 외롭지 않게 한다.

인간적인 소통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런 '덕불고 필유린' 정신에 근거한다고도 하겠다. 우리 육체는 혈액순환이 좋아야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몸 골고루 가게 된다. 고단백 지방질의 편중된 음식으로 혈전이나 고지혈증이 생기면 혈관이 막혀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사회도 어딘가 막히고 답답해지면 정상생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매사에 깊고 넓은 사랑으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길에는 고지혈증 같은 혈관이 막히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문학인들은 인간세계에 따듯이 손잡아 주고,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계속 할 것이다. 여러분도 문학을 더 사랑해 주길 바란다.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꾸자

4회차 / 10월 12일(수)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우리 사회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귀족주의에 대한 반감이 화로 표출되는 것이다. 인간은 화를 내기 마련이지만 화를 내는 사

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바꾸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된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고 현재 선진화의 초입에 와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적 신뢰문제, 공정사회, 법적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꿀까? 먼저 국민총행복지수를 높여

야 한다. 사람들은 먹고살만해지면서 돈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국가도 국민총행복지수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총매력지수도 높여야 한다. 개인, 가정, 직장, 도시, 국가 모두 매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해졌다.

생각의 틀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속도이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강자와 약자로 나뉘던 사회에서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뉘는 사회로의 이동을 이야기했다. 산업사회에서는 규모의 경쟁이었지만 21세기는 속도의 경쟁이다. 교육도 빠른 학습에 평생학습이 더해져야 진정한 지식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원-원의 사고방식도 원-원-원으로 바뀌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것이어야 진짜 상생을 할 수 있다.

사람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감성, 신뢰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파고들어야 소통이 된다. 소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중앙공무원교육원 61년 역사 최초의 민간 원장에 취임한 이후 조용하고 신속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성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했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모두 바꿨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던 교육에 각종 시상제도를 도입해 흥미를 유발하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십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덕에 대통령도 강사로 모실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현대사 특강 시리즈'는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됐다. 뿐만 아니라 도전정신, 열정, 패기만으로 꿈을 이루고 자기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을 강사로 모시기도 한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가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로 도전하고 소통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쾌한 소통의 법칙

5회차 / 10월 19일(수) 김창욱 퍼포먼스트레이닝연구소 소장

소통은 행복이자, 성공이며, 생명스러운 것이다. 소통을 잘하려면 먼저 언어를 알아야 한다. 사람과 소통할 때는 '나의 언어'를 '그들의 언어'로 해야 한다. 내가 즐겨 쓰는 언어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들의 표현' 즉,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해야 그들과 통(通)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른다. 아니,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준다. 누구나 웃기는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도 좋아한다. 그런 리액션(reaction)을 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상대방의 생명을, 살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을 웃게 만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웃어주는 것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다. 인생의 해답보다는 마음을 같이하는 리액션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동조해 주는 것이다.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고인 물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감수성을 담은 언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연다. 소통하는데 가장 좋은 언어는 잔소리나 데이터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과 같은 감수성의 언어와 영적 언어이다.

마음이 좋으면 얼굴 표정이 편안해진다. 마음, 생각, 지식, 감정에 변화가 있으면 몸에 영향을 줘서 얼굴 표정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상처'라는 문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문은 '상처'와 '유머'이다.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람을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이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통하는 생명이다. 성(性)이라는 통(通)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고, 부모와 자식이 통합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생명스러워지는 것이다. **김창욱**

경북 구미시 아은아카데미 9월 28일(수)

김봉곤 훈장의 고전이야기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와 본원이 2009년 6월 개설한 ‘아은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진행되고 있는 ‘아은아카데미’는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9월 28일, “김봉곤 훈장의 고전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김봉곤 훈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은 뿌리교육이다. 이 뿌리교육은 우리네의 충과 효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나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고전에서의 지혜를 되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지(知止)는 소위불태(所以不殆)니라

노자께서 말씀하셨다. 그치거나 머물 줄 아는 것은 소위불태(所以不殆)라. 즉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공자께서 피꼬리가 울창한 숲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고 “황조라는 이 피꼬리도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몰라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임금은 어디에 그쳐야 하는가? 인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은 왕도정치의 기본이다. 왕이 인의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반기를 들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식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자효쌍친락(子孝雙親樂)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아버지가 즐겁다는 의미이다. 즉 자식은 효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다면 군수는, 공무원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위치, 자리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본인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자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나는 충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노자의 말씀이다.

망족(忘足)은 이지적야(履之滴也)니라

장자께서 말씀하셨다. 망족(忘足)은 이지적야(履之滴也)니라. 발을 잊는 것은 신발이 잘 맞기 때문이다. 이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한다. 신발이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허리띠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삼라만상은 각자의 위치가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화목하다. 신발이 발에 맞을 때 발에 대한 걱정을 덜 듯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충실히 잘 할 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본인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제 역할을 해내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간 자체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물 등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사물들은 누군가의 역할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딘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루어낸 결과물을 타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상대방과 다른 생물 혹은 비생물과 함께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많은 근심걱정을 덜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자연에게, 함께하는 많은 인간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장자가 21세기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망족(忘足) 이지적야(履之滴也)의 의미이다.

천하유 상승지도(天下有 常勝之道)하고 유불상승지도(有不常勝之道)니라

도가의 열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유(天下有) 상승지도(常勝之道)하고 유불상승지도(有不常勝之道)니라. 천하에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과 도가 있고,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패자의 길이 있다. 여기서 도는 사물의 당행지로(當行之路)이다. 인간이 당연히 가야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도를 닦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천하유 상승지도는 항상 승자가 되는 방법 또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의가 항상 승리한다는 의미이다. 항상 정의롭게 사는 것이 승자가 되는 길이다.

각종 종교에서 섬기는 신은 공통점이 있다. 예수는 사랑을, 공자는 인을, 부처는 자비를 말씀하셨다. 표현만 다르고 결과적으로는 같다. 사랑, 인, 자비를 지닌 사람은 내병이 생기지 않는다. 자신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타인과 나눌 수 있다. 종교적인 해석을 가미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도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곧은 마음과 사랑, 인,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비무안거야(非無安居也)요 아무안심야(我無安心也)니라

유가 목자의 말씀이다. 비무안거야(非無安居也)요 아무안심야(我無安心也)니라. 편안하게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행복지수가 낮은 편이다. 반면 발전 속도가 더딘 저개발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지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의 욕심은 '밑 빠진



구미시야은아카데미



김봉곤훈장의 고전 이야기



김봉곤 훈장

1968년 생으로 지리산 청학동에서 태어나 20년 동안 전통 서당에서 공부했으며, 연세대 교육대학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등을 수료했다. 방송을 통해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도 방송활동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통예절에 관한 강의활동을 하고 있다. 도덕성회복 국민운동본부 부총재, 중국 소림사 무학교 명예교장,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특별자문위원, (사)우리문화 나눔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만족심이 없고 분수를 모른다.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아흔 아홉 섬을 가진 부자가 한 섬을 사서 백 섬을 채운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왔을지도 모르지만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리학에서는 자기 몸의 주인을 마음이라 했다. 맹자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일곱 가지 정을 말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성품 속에 있는 네 가지 실마리를 사단(四端)이라고 하고, 여기서 발현되는 일곱 가지 감정을 칠정(七情)이라고 했다. 성인은 이러한 사단칠정, 즉 마음을 다스리는 지심공부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 어디에 살던, 물만 마시던, 콩보리밥 한 그릇을 먹던 간에 안분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통해 얻는 행복이 가장 크고 빨리 찾아오는 행복이다.

군자불감어수(君子不鑑於水)하고 이감어인(而鑑於人)이 아니라

목자의 말이다. 군자불감어수(君子不鑑於水)하고 이감어인(而鑑於人)이 아니라.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물을 떠다놓고 거울로 삼는 것보다는 훌륭한 사람을 거울로 삼는 것이 낫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다. 거울을 보는 행위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 그것은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한 것인데,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군자는 사람을 그러한 거울로 삼는 법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거울은 부모님이다. 거울은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말로 표현해준다. 문제점과 잘못을 지적해주는 거울의 역할이다. 선생님과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이나 스승의 말씀을 거울 보듯 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한다면 우리도 군자가 될 수 있다. 성인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고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울,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거울은 반성이다.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바탕은 반성에 있다. 그는 전쟁이 치러지는 7년 동안 난중일기를 쓰면서 매일 자신을 반성하여 분석하고, 보완 수정하여 전쟁을 치렀기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만이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욕지미래(慾知未來)면 선찰이연(先察已然)이 아니라

욕지미래(慾知未來)면 선찰이연(先察已然)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러한 것을 살피라는 의미이다. 이는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의 결과물을 얻게 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이력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신발을 신고 강의를 하러 왔다. 이것이 나의 이력이 된다. 이것은 나의 행적이고 과거이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의 마음의 발걸음이다. 어떤 마음 씀씀이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내며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심신에 병이 걸려있거나 앞으로 병에 걸리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나폴레옹은 "우리가 어느 날엔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말을 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된다. 혹시 잘못된 생각, 마음으로 잘못된 발걸음을 해왔던 행적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발걸음이 바뀔 것이고 더 좋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시간들에 의해 보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KHDI**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는 길

지난 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대재앙으로부터 일본을 구하기 위해 100억 엔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바로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었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사회의 민족차별 등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손 회장의 가슴 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꿈과 비전이 담겨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혁명시대가 손정의라는 시대의 영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내다보는 21세기에는 어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지 궁금한 것은 필자들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2011년 세계에 큰 화제를 남긴 인물은 단연 스티브 잡스이다. 애플왕국을 세워 21세기를 새롭게 그려나간 창조자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의 전기 <스티브 잡스>는 끝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그가 만들어 온 위대한 제품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들었던 조직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조직을 이끌어 온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의 사후에 애플왕국이 보유한 현금 자산만 850억 불에 이르러 세계 어느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기업을 남기고 갔다. 그는 경쟁자이기도 한 빌 게이츠와 함께 미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강국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한 영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왕국을 만들어 10년 넘도록 세계 최고 부호 자리에 있었던 빌 게이츠는 주식투자의 제약 워런 버핏과 함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기부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빌 게이츠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오른 인물이 이채롭다. 주인공은 개발도상국가로 평가되는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엘루 텔멕스텔레콤 회장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인물이지만 슬림은 2007년 빌 게이츠를 누르고 세계 최고 부호 자리에 오른 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부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슬림이 소유한 회사의 생산량은 멕시코 국내 총생산량(GDP)의 5%에 달하며, 그의 사업체 전체 시가총액은 1500억 불로 추산되고 있다.

무명에 가까웠던 슬림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랐을까? 최근 포춘지는 슬림의 성공비결을 저가매수 전략에 따른 과감한 M&A, 돈에 대한 천부적 감각, 그리고 철저한 근검절약정신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82년 멕시코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채무불이행, 인플레이, 주가폭락

등으로 투자자들이 떠난 틈을 타고 저평가된 우량기업들을 탁월한 안목으로 헐값에 매입했다. 1984년 세구로스 데 멕시코라는 보험회사를 1천300만 불에 사들인 데 이어 레스토랑 체인 산보르스를 3천만 불에 매입했다. 이후 멕시코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헐값에 인수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 세구로스 데 멕시코는 기업가치가 15억 불, 산보르스는 세전 수입이 5억 불에 달하는 우량기업이 되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1990년, SBC(현 AT&T)와 프랑스텔레콤으로부터 지원받아 20억 불에 멕시코 국유 전화회사인 텔멕스의 지분 51%를 확보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슬림은 휴대폰회사 아메리카모바일의 지분 70%, 유선 전화 시장의 9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타이어, 알루미늄, 광산, 철도, 인쇄, 건설, 항공, 석유, 전자, 금융사 등 200여 개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멕시코 최대 그룹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 부호로 등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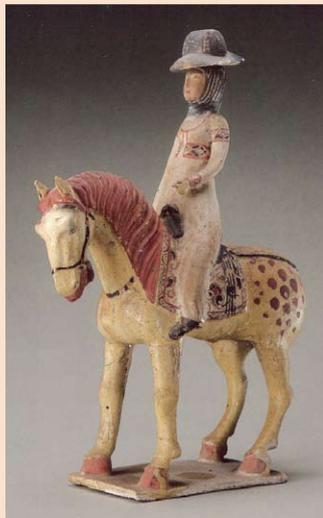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슬림의 아버지는 레바논 출신의 이주민으로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멕시코시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부자가 된 인물이다. 슬림은 부친의 경제교육과 정신을 이어 받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투자를 지속하면서 세계적인 부호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슬림은 평소 값싼 전자시계를 차고 다닐 만큼 검소한 생활태도에 회사가 잘 나갈 때에도 근검절약정신을 직원들에게 실천해보임으로써 직원들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지도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회장 짐 오닐은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4개국이 2011년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투자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MIKT를 주도해 나갈 멕시코의 경제성장을 슬림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슬림은 이제 멕시코 슬림제국의 황제에서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슬림의 성공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위기가 바로 기회이다. 지금이야말로 투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도전정신을 가지고 준비한 자에게 붙잡힐 뿐이다.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 최고의 기업 또는 부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201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2012년은 희망과 도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김예**

동아시아역사(東亞細亞歷史)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5



안지추는 수레를 몰고 가는 복제 상류사회 선비족 부인들을 신기한 듯 묘사했지만 당 나라 유물 중에는 아예 남자와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호기롭게 다니는 채색(彩色) 부인 상(影像)이 많이 발견된다. 섬서성 려천현(陝西省禮泉縣) 당(唐) 좌무위대장군(左武衛大將軍) 정인태(鄭仁泰 601-63) 묘 출토. 陝西歷史博物館

언젠가 사학계에서 수와 당을 서만주선비족(鮮卑族)의 정복왕조인 북위-서위-북주의 직계로 분류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지난 2천 년 간의 중국 역사란 것이 이민족에게 간헐적으로 정복당한 역사가 아니라, 이민족의 지배가 단 두 번(宋-明)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로 바뀌게 된다.



● 홍원탁 교수

칼럼 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 자료와 2차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http://www.HongWontack.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북위는 고환의 동위/북제와 우문태의 서위/북주로 양분되었다. 다음은 북제의 세태를 꼬집어 말하는 한족 안지추의 안씨가훈 내용 중 하나다. 『조정의 사대부 하나가 "내게는 17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서신과 공문서 작성을 꽤 잘한다. 나는 지금 그에게 선비어와 비파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 조정의 공경들에게 쓸모가 있게 되면 그들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선비족은 비파를 타면서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수-당은 진사 과거에서 시부(詩賦) 중심으로 문학적 능력을 시험했기 때문에, 한족 대지주-호족들의 취향마저 바꾸어 놓았다. 시는 눈으로 보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렀고, 이국적인 음률은 시에 낯선 멜로디와 리듬을 도입시켰다. 조정의 엄숙해야 할 예약조차 이국적 음악으로 점차 대체되어 보수적인 유학자들의 혐오감을 일으켰다. 실크로드 주변에서 태어난 터키족 출신 이태백(李白)의 시가 두보(杜甫)를 위시한 당대 한족들을 매혹한 것은 외래 문화와 불교사상이 전성기를 이룬 당 제국의 정복왕조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안지추는 계속 말한다. 『하북(河北)의 부인들은 갈쌈, 비단 짜기, 바느질, 자수 등의 솜씨가 강동(江東) 부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남중국에서는 사족인지 서인인지는 몇 마디 들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나 북중국에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말 소리만 들어 보면 하루 종일 들어보아도 그 말하는 사람이 사족인지 서인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남방 말은 오월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南梁吳越), 북방 말은 이민족 말과 뒤범벅이 되어 있다(北雜夷虜).』 『강동의 부녀자들은 별로 바깥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제 수도 업(鄴)의 풍속을 보면, 부인들이 집안 운영을 전담할 뿐 아니라(專以婦持門戶), 소송을 걸어 곡직을 가리고, 손님을 초청하고 초대에 응하기도 한다. 수레를 몰고 가는 부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관청에는 비단옷을 입고 아들을 위해 관직을 구하고,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인들로 가득하다. 부부 간에는 서로 "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로 탁발선비족의 풍속이다(桓代之遺風)!』 대(代)는 탁발선비 본향인 대군(代郡), 항주(恆州)는 북위 수도가 위치했던 평성 지역을

말한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학자들이 북제는 한화(漢化)가 심했기에 서위/북주 만이 정통 선비족 정복국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탁발선비족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탁발규(拓跋珪) 선조들이 악전 고투를 하던 시기에 탁발부족 지도자들의 모친과 부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돋보여 당시 사람들은 탁발을 여국(時人 謂之女國)이라 불렀다. 무전천 출신 독고신의 일곱 번째 딸(文獻獨孤皇后)과 결혼한 수 문제 양견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처(公處)였다. 이연의 태모황후 두씨의 모친은 우문태의 맏딸이었고, 외삼촌인 무제가 궁중에서 키웠다. 어렸을 때 그녀는 삼촌이 돌궐 카간의 딸인 아사나(阿史那)황후를 냉대하는 것을 보고, "관동의 북제(齊)와 강남의 진(陳 557-89)을 평정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552년에 유연을 멸하고 수십만의 기마 궁수를 거느리는] 돌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 만백성을 위해서라도 돌궐 부인을 따듯하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충고를 했다. 북주 무제는 깊이 반성하며 그녀의 충고를 따랐다 한다. 581년, 양견이 북주 정제를 제거하고 수 나라를 세웠다. 우문태의 외손녀인 두황후는 617년에 남편 이연과 19세인 아들 이세민이 3만의 군대를 이끌고 태원을 출발해 우문씨 집안의 원수를 갚고 당 왕조를 수립하는 쾌거를 보지 못하고 45세의 나이로 서거했지만, 그녀의 딸 평양(平陽)공주는 관중(關中)에서 자신이 직접 모집한 만여 정병(娘子軍)을 거느리고 이세민과 함께 활약을 해 "남자로 태어날 수 없었던 것"을 한탄했던 모친의 한을 풀어주었다. 623년, 평양공주가 죽었을 때 당 태조 이연은 군사를 도열시켜 북과 나팔의 군악으로 장례를 치렀다. 탁발부족 핵심 지배 씨족 출신인 이세민의 문덕황후(文德皇后) 장손(長孫)씨는 탁발선비 전통에 따라 태종의 통치를 적극 보좌했다. 수-당 사회의 적극적인 여성 참여 관행은 만주에서 유래한 정복왕조 전체의 전통이었다. 여권이 강하고 비 유교적인 선비족의 전통은 측천무후가 미륵불이 하생하여 여황제가 된다는 식으로 불교를 앞세워 황제로 등극할 수 있게 했다. 청조(淸朝)는 한족의 전족(纏足) 관행을 여성 비하의 아만적인 풍습으로 보고 만주족 여인에게는 엄금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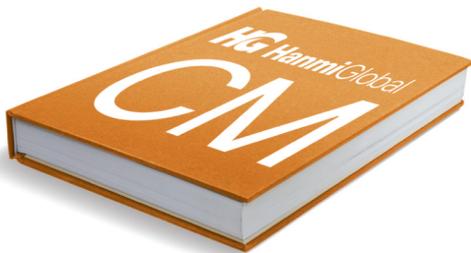


ETRO

Do you know...?

미국에선 건설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CM을 찾는다는 사실...

한미글로벌은 선진 건설관리방식인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기획부터 설계, 발주, 시공, 사후관리까지 건설사업의 전 분야를 통합 관리하여 사업비 절감, 사업 기간 단축 등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사업은 한미글로벌 CM으로 시작됩니다

※ 한미글로벌은 한미파슨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xcellent People & Excellent Company

- 서울 월드컵경기장,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산 신항만 등 국내외 700여 개 대형 프로젝트 수행
- 08년 세계적인 건설전문지 ENR선정 세계 16위 CM기업(US제외)
- 중국, 두바이, 아부다비,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리비아 현지법인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미국 종합엔지니어링 회사 'OTAK'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경영 강화로 2015년 Global Top 10 CM Company로 도약
- 구성원 중심의 조직문화로 '일하기 좋은 일터(GWP: Great Work Place)'상 8년 연속수상(최근 3년간 대상 수상)
- 창립이래 매월 전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여 나눔과 사랑을 실천

MAESTRO

문의 : 070-7118-1105

홈페이지: www.hmglobal.com

파크원(PARC1) Project

여의도 S-Trenue

국립과학관

송도 국제컨벤션센터

판교 알파돔시티

싱가포르 카지노호텔

